

제7회 금산 동학혁명 및 제5회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

발표자: 이동복(금산향토문화연구원장)
성주현(부천대학교 교수)
박맹수(원광대 원불교학과교수)
토론자: 배항섭(고려대 연구교수)
이동복(금산향토문화연구원장)



- 일시 : 2009년 12월 4일(금)오전10시
- 장소 : 금산다락원 소강당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제7회 금산동학농민혁명 학술발표회

- 발행일: 2009년 12월 4일
- 발행인: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동복
(h.p: 010-9335-3634)
- 발행처: 금산인쇄사 (☎041-753-5148)

순 서

◆ 발간사(금산동학농민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동복)	3
◆ 축 사(금산군수)	4
◆ 축 사(금산교육장 이철주)	5
◆ 제7회 금산동학농민혁명 학술발표	
<주제> 백제의 마지막보루, 탄현은 금산 배티재	
- 이동복(금산향토문화연구원 원장)	6
<주제> 금산지역 동학군의 황토현 전투와 전주성 점령 의 공과	
- 성주현(부천대학교 교수)	17
<토론> 배항섭(고려대 연구교수)	30
이동복(금산향토문화연구원장)	31
<주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검토	
- 박맹수(원광대 원불교학과교수)	33
<토론> 배항섭(고려대 연구교수)	61
이동복(금산향토문화연구원장)	63

발 간 사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제7회 금산 동학농민혁명 학술발표및 제5회 “의로움”의 금산정신 구현을 위한 학술 발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산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작년 학술 발표회서는 인사말씀에 금산동학혁명의 역사가 전국적인 동학농민 역사에 지평선 뒤에 둥근 해가 떠오르기 시작 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금산동학의 역사가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한국 동학농민혁명사에 비취지기 시작 했다고 말씀 들이고 싶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 기관 관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오늘은 금산동학농민혁명이 1894년 3월의 1차 동학혁명 봉기가 전국적인 동학혁명으로 확산 되는 정읍 황토현 전투 전주성 함락에 원천적인 힘이 금산동학농민군으로부터 나왔음을 성주현 건생께서 밝혀 주시고, 박맹수 교수께서 한국 동학혁명사에서 최시형 동학교 교주가 1차 3월의 동학혁명에 참여 하지 않았다가, 정설처럼 믿어 온 사실이 최시형교주가 동학농민혁명을 지도 했다는 새로운 논리를 전개 하실 것이고 백항섭 고래학교 교수께서는 1977년에 전라도 부안 태인 지역에 금산동학군이 활동 했음을 발표 하신분으로 오늘의 토론에 좋은 말씀에 기대 되는 분 이십니다.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보루 “탄현”이 금산 배티재란 것을 한국사에 밝히는 발표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참석하신 분들께 금산인의 자부심과 긍지로 승화 되길 바라며 인사 말씀에 가름 합니다..

서기 2009년 12 월 4 일

(사)금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동복 배상

축 사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역사의 뒤편에서 추위에 떨며 잠자던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은 금산 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회의 학술발표회를 통해 점점 역사 속에서 잃었던 빛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뜨거운 열정으로 ‘제7회 금산동학농민혁명’ 및 ‘제5회 의로움의 금산정신구현을 위한’ 학술발표회를 준비하신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동복 이사장님과 여러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발제를 맡아 주신 원광대학교 박맹수 교수님과 독립기념관 성주현 연구원 및 토론을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배항섭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학술발표회는 금산동학농민혁명을 되짚어 보고, 정읍 황토현과 전주성 함락과정에서의 금산동학농민군의 역할을 살펴, 동학농민혁명에서의 금산동학농민군의 위치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역사를 일깨우는 지속적인 노력과 남다른 열정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보냅니다.

학계와 범 국민적인 관심 속에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의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로 새겨지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4.

금 산 군 수

축 사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은 금강의 긴 물줄기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닌 충절의 고장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가 누란지위에 처했을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조헌, 고경명, 영규대사를 비롯하여 구국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쳐 산화한 수백 수천 무명 용사들의 넋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선현들의 애국혼이야말로 우리 금산인의 자부심이요 긍지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금산에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혼란기에 자칫 잊혀져 버릴 뻔했던 동학혁명의 진실을 밝히고자하는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발족한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그동안 많은 연구를 거듭하여 100년 넘게 역사의 그늘 속에서 묻혀있던 금산 동학농민혁명의 진실을 발굴해 냈으며, 역사적 고증을 위하여 정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제7회 금산동학농민혁명 학술발표회」를 통해 금산동학혁명을 중심으로 동학혁명을 재고하고, 녹두장군 전봉준이 관군과 최초의 접전을 벌였던 정읍 황토현 전투와 전주성 함락에서 금산 동학혁명군의 역할을 재조명한다하니 더욱 반가운 일입니다. 아울러 우리 금산의 향토문화연구원장이신 이동복 선생님께서 『백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탄현」은 금산 「배티재」다.』라는 주제로 우리 고장 금산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선보인다 하니 금산인의 한 사람으로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박맹수 원광대 교수님, 성규현 독립기념관 연구원님, 이동복 금산향토문화연구원장님께 축하와 더불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노고로 우리 금산의 역사와 정신이 재정립되고 후세에 자랑스런 금산의 유산으로 길이 빛날 것입니다. 금산의 역사 재건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9. 12. 4.

충청남도금산교육청교육장 이 철 주

백제의 마지막 보루, 탄현은 금산 배티재(黎峙)

이동복(금산 향토문화연구원장)

<서 문>

역사적으로 백제 마지막 보루 “탄현”이 어디인지 분명한 역사적 신라가 백제의 침략 과정의 침공 로선의 역사적 근거 없이 추리적으로 이곳저곳 일본학자를 비롯 역사 학자들이 발표가 있었으나, 확실한 역사적 기록을 접하게 된 본필자의 행운이 하늘에 감사하며 백제의 마지막 보루 “탄현”은 금산 배티재(黎峙)임을 밝힙니다.

1. 1장 총3장으로 구성 되어 1장에서는 우리 금산의 군사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저투장이된 지역으로, 신라 백제의 국경지대로 백제에서 신라로 신라에서 백제로 백제에서 신라로 뺏고 뺏기는 전장터로 되었고 특히 백제의 수도가 부여로 천도 되면서 백제는 수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 지역 “탄현”(배티재)가 금산 땅에 있었고, 신라는 경주를 사수 하기 위해 가야성(현 합천)이 중요성 이었기에 금산과 합천이 같은 운명에서 뺏고 뺏기고 반복된 역사적 사실을 밝혔고,

2. 2장에서는 백제의 마지막 보루 탄현, 금산 이치(배티재)다로 설정 하고 그간의 탄현에 대한 학계에 발표된 내용과 그중에 “여기가 금산이다” 최문희 선생의 탄현에 대한 내용을 검토 하면서 배티재가 탄현임을 밝혔고

3. 3장에서는 역사기록에 의한 금산 배티재(이치)가 탄현 임을 밝혔다

탄현이 배티재라는 글을 통해서 우리 금산인들이 금산의 군사 지정학적 위취의 금산, 교통중심지로서 금산이 역사적인 안목으로 임진란의 금산 전투 동학혁명의 중심에 금산이 있었음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줄고(拙稿)를 드립니다.

제1장 신라와 백제의 국경지대, 이전 투구(泥田鬪狗) 하는 금산

1) 한강 유역을 뺏고 빼앗기는 삼국(고구려,백제,신라)시대의 금산

가. 금산 땅은 백제에서 신라 신라에서 백제로 뺏고 뺏기는 전쟁터

동아시아 세계에서 무력 1등 국가는 단연 고구려였고 그 기간은 4-6세기초 까지였으며 신라는 3등 국가였다. 고구려는 신라 내정에 간섭하며 심지어는 왕위도 실성왕(實聖王)을 제거하고 21대 눌지왕(訥祗王 서기 417-458)을 왕위에 올리기도 했을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눌지왕 17년(433)에 이르러 신라는 백제와 우호관계를 맺고 고구려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백제의 개로왕은 중원의 강국 북위(北魏)와 연합하여 고구려의 남진을 막으려 했으나 북위가 거절하는 정세에서 고구려 장수왕은 백제 개로왕이 바둑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바둑 고수 승려 도림(道琳)을 간첩으로 파견하여 개로왕이 도림을 늦게 만난 것을 후회하며 도림에 빠지게 되어 왕궁을 잘 꾸미고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일으키게 하여 국가 경제를 망치게 했다.

드디어 고구려 장수왕은 백제 왕도 한성(漢城)을 3만 병력을 동원 투입하니 신라 자비왕(慈悲王)이 1만명의 지원병을 보냈으나 성에 도착하기 전에 개로왕은 전사했다. 475년 고구려 장수왕 3년 일이다. 이리하여 백제의 한성시대는 493만에 끝내고 웅진(공주) 사비(부여) 시대로 옮겨가지만 백제 신라는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는 틀이 되었다.

삼국이 한강유역을 국경으로 맞댄 이 후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상당기간 억눌러 오기만 했다. 이런 신라가 처음으로 진흥왕 11년 550년에 백제와 고구려가 일진일퇴의 전투를 벌리는 가운데 고구려 금현성 백제의 도달성을 탈취했던 것이다.

2) 550년을 기점으로 전투장이 되어버린 금산!

가) “삼국사기”신라 진흥왕 11년 서기 551년 초의 기록, 봄 정월, 백제가 [聖王이 장군 달기(達己)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 고구려 도달성을 빼앗았다. 3월 고구려가 백제의 금현성을 점령했다. 신라 진흥왕은 두 나라가 군사가 피곤한 틈을 이용하여 아찬 이사부(異斯夫)로 하여 두 성을 빼앗아 성을 증축하고 갑사(甲士) 천명을 머물게 하여 그 곳을 수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진흥왕은 (고구려 금현성은 현재의 충북 진천이고 백제의 도달성은 충북 청주 지역으로) 오랜 기간 억눌려왔던 신라로서 힘의 기지개를 피기 시작함과 동시 우리 “금산” 땅은 전투장화 된다.

나) 554년 관산성(管山城) 전투와 금산은 전술한바와 같이 433년 이래 고구려 남진

을 막기 위한 신라와 백제간의 동맹이 신라의 파기로 120여년간의 동맹관계에 금이 갔으나 백제는 현실적인 고구려에 대한 복침을 계속 제의 하였으나 신라는 이를 거절하고 있고 오히려 고구려와 화친을 맺었다.

이런 가운데 신라 진흥왕 14년(553) 7월에는 진흥왕 12년(551)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 10개 군을 빼앗았는데 이 때 백제 성왕이 백제 왕조 발생지인 한강하류 6개 군을 탈환하여 개로왕의 죽음이라 처음으로 고구려에 설욕했던 그 6개군을 신라가 빼앗아가버린 것이다. 이런 속에서도 백제 성왕은 고구려와 전쟁을 하고 신라와는 자기의 딸을 진흥왕에게 소비로 보내는 정략 결혼을 하며 시간을 벌고 있다. 백제를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물자와 군사가 속속 들어오고 신라로부터 합병 압박을 받고 있던 대가야(고령) 중심의 가야연맹 국가들도 백제에 가담했다.

성왕은 백제 -가야- 일본의 연맹이 결성되자 왕자 여창을 장수로 삼아 희심의 신라 정벌을 시작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진흥왕 15년(554) 가을 9월 백제군은 신라의 서부 국경에 침입하여 남녀 3만 9천여 명을 포로로 잡고 말 8천 필을 탈취했다고 되어 있으니 처음 전투의 시작이 눈부심을 알 수 있다.

바로 성왕의 왕자 여창이 관산성에 본부를 설치하고 얻은 승전이였다. 그러나 백제는 불운했다. 최고 지휘관 여창 왕자가 진중에서 병을 얻었다. 불행은 더 더욱 크게 닥쳤으니 성왕이 아들 여창의 급작스런 병을 염려하여 불과 50기만을 거느리고 관산성 사령부를 가던 중 식장산 부근에서 매복하여 있던 신라 적병에게 포로가 되어 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왔으니, 백제 중흥의 영주로서는 너무 허망한 죽음이 아닌가! 통탄할 일이다. 이 때의 상황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다는 「일본서기」 554년 12월 초에 [얼마 후 도도(신라비장)가 성왕을 사로잡았다. 두 번 절하고 왕의 머리를 베려하니 성왕이 꾸짖어 가로되 “종놈이 감히 왕의 목을 베려 하느냐고 했다. ‘우리나라 법은 맹세를 위배하면 왕이라도 종놈의 손에 죽습니다.”고 했다. 성왕이 탄식하며 “과인은 매양 너희나라의 배신이 골수에 사무쳐 왔다.”하고 참을 당했다. 다) 이은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은 김무력(김유신의 할아버지)의 발군의 전공으로 백제 16관동 중 1위인 좌평 4명을 포함 백제, 가야, 일본, 연합군 2만9천6백명을 참살했다. 이 때 백제군 최고 지휘자 왕자 여창은 한 가닥 혈로(血路)를 뚫고 겨우 전장에서 이탈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일본서기」 [여창이 포위를 당하여 탈출할 도리가 없었다. 축자국조(지금의 후쿠오카 지방의 호족)가 활을 쏘아 신라 기병 중 최강자를 떨어뜨리고 이어 비오듯 쏟아부어 포위군을 물리쳤으며 여창과 장수들이 사잇길로 빠져 도망쳤다.] 여기서 승세를 굳힌 신라군은 다시 서진하여 금산, 무주, 전주 동부지역까지 침탈하여 완산주를 설치하였다. 여기서 관산성이란 지금의 옥천군 군서면에 위치하며 추부에서 옥천 가는 길 계곡이다. 백제군 왕자 여창이 성왕의 뒤를 이은 위덕황제로 2005년 SBS 연속드라마 “서동요”에서의 위덕황제이고 주인공 “장”이 무광태자로 “무”왕이 되고 무왕의 아들이

백제 마지막 왕인 역사적인 사실이 더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인물들이다. 금산의 군사 지리학적 중요성은 접경지역 으로서도 신라가 삼국통일 할 때까지 (660) 본 필자가 접한 기록으로는 2번의 전투가 더 있음을 미리 밝히며 의자왕의 금산지역 회복의 전투로 이어갑니다.

라) 의자왕 2년(642) 금산지역 등 40여개 성 탈취

신라 선덕여왕 11년 백제 의자왕 2년(642) 7월 8월 걸친 백제군의 총공세는 신라를 최대 위기로 몰아갔다. 「삼국유사」 기록이 옳다면 선덕여왕은 의자왕의 이모가 된다. 그러나 의자왕은 신라에 빼앗긴 요충 지대인 미우(금산군 진산) 등 40개 성을 함락시켰다. 의자왕의 대공세는 신라와 백제간의 균형을 일거에 깨는 장쾌한 것이었다. 이어 8월에는 윤충(允充) 장군에 1만의 병사를 주어 신라의 대야성(경남 합천)을 함락 시켰으니, 신라는 낙동강 서안일대의 영토를 잃게 되고 그 뿐 아니라 신라의 서울 서라벌이 위험지경에 빠지는 요충지대이다. 「삼국사기」 죽죽(竹竹)전에 전투 상보를 살펴 볼 수 있다.

선덕여왕 11년 가을 8월에 백제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대야성(합천)을 공격했다. 이에 앞서 도둑 품석이 자기의 막객(비장)인 사지의 아내가 아름다워 그녀를 빼앗은 일이 있다. 검일은 이를 한스럽게 여기고 있던 참이었다. 윤충 부대가 성을 공격하자 검일은 내응(內應)하여 창고에 불을 질렀다. 성안의 민심이 흉흉하고 두려워하여 성을 굳게 지킬 수 없었다.

품석의 보좌관인 아찬 서천(西川)이 장대 위에 올라 윤충에게 말했다. “만약 장군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성을 바치고 항복하겠습니다.” 윤충은 응답한다. “만약 그렇게 하고도 공과 내가 함께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때는 밝은 태양이 있으니 태양을 두고 맹세합니다.” 서천이 품석과 여러 장병들에게 권고하여 성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죽죽이 이들을 제지하며 말한다. “백제는 말을 번복하는 나라로 믿을 수 없고 윤충의 말이 달콤한 것은 필시 우리를 유인하려는 것이고 만약 성 밖으로 나간다면 틀림없이 적의 포로가 될 것이요. 쥐새끼처럼 숨어사는 것 보다는 차라리 호랑이처럼 용감하게 싸우다 죽는 편이 더 낫소” 그러나 품석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성문을 열었다. 사졸이 먼저 나가자 백제군이 복병을 일으켜 모조리 죽였다. 품석이 나가려다가 장병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자기의 처자를 죽인다음, 자신의 목을 찢러 자살했다. 죽죽이 남은 군사를 간신히 수습하여 성문을 닫고 방위하고 있는데 사지 용석이 죽죽에게 말한다. “지금 전세가 이러하니 필경 성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요 차라리 항복하고 살아서 후일을 도모합시다.” 죽죽이 대답한다. “그대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나의 아버지가 나를 죽죽(竹竹)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날씨가 추워도 대나무처럼 시들지 말며 꺾일지언정 굽히지 말라는 것이니 어찌 죽기가 두려워 항복하여 살겠오.” 죽죽은

힘껏 싸우다가 드디어 성이 함락되어 용석과 함께 전사했다. 이렇게 금산을 비롯한 40개 성과 대야성의 서부 국경지대의 중요 요충지대를 의자왕은 확보하여 신라와의 세력 확장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두 요충지대를 회복 하려는 신라의 대지도자 김유신이 6년의 시기를 기다려 대반격에 성공한다.

마), 647년 선덕여왕 원년 백제 의자왕 침공

신라 김춘추가 대당외교 대고구려 외교를 모험하고 있을 때, 김유신 장군은 국내 비담의 반란을 평정하고 정권 교체 시기에 약점을 이용한 의자왕이 금산지역을 642년 평정한 이후 다시 647년 10월 금산인접 무주 무풍 경북 금릉군 개령면 충북 청주 지방을 공격하니, 선덕여왕 원년 왕은 김유신에게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주어 이를 방어하게 하니 이 전투에서 3천여 명의 적의 목을 베고 대승하였다.

바). 6년전에 빼앗긴 금산성 대야성을 김유신이 되찾아 온다.

「삼국사기」 김유신에 관한 기록

[이 때 유신은 압량주(경북경산) 군주(軍主)로 있었다. 그는 군무에는 아무런 뜻이 없는 것처럼 술을 마시고 풍악을 울리며 수개월 지냈다. 고을 사람들은 유신을 용열한 장수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이 편하게 생활한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힘의 여유가 있어 한바탕 싸울만 한데 장군이 저렇게 나태하니 이 일을 어찌할까!”라고 비방했다. 그러나 김유신은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국뿐만 아니라 자기편까지도 이렇게 속이는 병법가였다. 6년 전에 빼앗긴 전략적 요충지 대야성 금산성을 진덕여왕 2년(648) 탈환하라는 명을 받고 짐짓 태만 하는 것처럼 위장술을 펴고 있었던 것이다. 적을 방심시키려면 아군부터 속여야 하는 것이 병법의 요체이다. 왜냐하면 적군도 아군이 속지 않은 일에 속아 넘어가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백제군의 경계가 소홀해졌다. 그때서야 김유신은 진덕여왕에게 나아가 말한다. “민심을 보니 이제 일을 할 만합니다. 청컨대 백제를 쳐 원수를 갚으십시오.” 여왕이 걱정한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건드리면 그 위태로움을 어찌 할 것인가!” 유신이 대답한다. “전쟁의 승부는 그 세력의 크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민심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주(紂 :은(殷) 마지막 임금)에게는 억조의 백성이 있었으나 인심이 떠나고 덕을 잃어 주(周)의 열 명의 신하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것만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뜻이 되어 생사를 같이 할 수 있으니 백제쯤은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이에 선덕여왕은 출정을 허락한다. 김유신은 각 주의 병사를 선발하여 조련시켰다. 그는 왕경 출신보다 시골 출신의 순박한 병사야말로 정예병으로 다듬기 쉽다는 것을 아는 묘기를 터득한 장수였다. 드디어 김유신 군은 대야성을 향해 진군한다. 대야성의 백제군도 성 밖에 진을 치고 역공을 감행한다. 김유신은 파탄을 보이며 패주한다. 백제군은 대병을 휘몰아 신라군을 추격한다. 경적필패(輕敵必敗) 즉 적을 얕잡아 보면 패하게 마련이다. 추격하던 백제군이 옥문곡(玉門谷)에서

신라의 북병에 걸려 대패하고 만다. 이 때 김유신 장군은 백제군 장군 8명을 사로잡고 군사 1천명의 목을 베었다. 승세를 탄 김유신 장군은 백제국경 안으로 들어가 악성들 12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군 2만 명을 베고 9천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와 같은 전공을 세운 김유신을 선덕여왕은 이찬(제2위관등) 직위를 내리고 상주 행군 대총관으로 삼았다. 이에 다시 김유신은 백제 진례(금산) 등 9성을 공취하고 9천명의 머리를 베었다. 전쟁은 인간을 삼키는 악마다. 이 전투에서 3만 명의 목을 베었다. 전쟁은 비참하고 처절한 것이다. 우리 금산은 전략적 요충지에 있다는 지리적 이유만으로 전쟁의 아픔을 안고 디디고 일어 선 아픈 상처를 가진 땅의 주인이 된 것을 재삼재사 생각하게 한다. 마음이 무겁다.

제2장. 백제의 마지막 보루 “탄현”은 금산 이치[(黎峙) 배티재]다.

(금산이 산라가 백제 침공, 로선에 있었는가?)

탄현이 어디인가 하는 역사학자들의 이론들이 많이 있어왔다. 탄현에 관한 이론들을 정리하고 탄현의 위치와 탄현 가는 길에 금산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점을 풀어본다.

“여기가 금산이다”라는 금산역사를 기술한 충청남도 향토문화 연구소 발행 최문휘(崔文輝) 선생 저서 29쪽 19행부터 탄현에 대한 이론들의 정리와 선생의 판단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금산의 연관성의 유무에 대한 유일의 문서이다. 이 문서를 바탕으로 필자의 판단을 밝힌다.

앞에서 밝힌 대로 23쪽 19행부터 살펴보면 역사적으로는 탄현에 대한 설로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와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고개가 탄현이라는 설이 있으나 역시 타당한 설은 아닌 상 싶다. 탄현에 대한 설로는 ①추부면 요광리에서 대전직할시로 넘어가는 마달령이 탄현이라는 설도 있고 ②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삼거리 숲고개가 탄현이라는 설과 ③대전직할시 동구 세천동 식장산 아래 고개가 탄현이라는 설과 ④금산군 진산면에서 논산군 벌곡면으로 이어지는 숲고개가 탄현이라는 설과 함께 엇갈리는 설이 많은 것이 탄현에 대한 해석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설은 탄현에 대한 뚜렷한 기록이 없는데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설이었으나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보아 탄현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경계를 나누는 세천동 식장산 아래가 아닌가 한다. 일본의 역사학자 소전성오(小田省吾)의 설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 삼거리 탄티에 대한 설은 신라군의 백제 진격로와 황산벌에의 경로로 보아서도 잘못된 해석이며 지내굉(地內宏)의 설인 마달령 설은 조선시대 북쪽으로 통하는 큰 길이었다는 설과 병행해서 생각할 수 있는 설이며 대원리무(大原利武)의 설인 제원 설인 천내리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사이의 (黑峴)설은 지형적으로 해당된 설이 못되며 지헌영(地憲英)의 식장산 아래 고개가 바른 해석이 아닌가 한다라고 최문휘선생은 주장하며 보충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설명 ①구전 설화에 따르면 신라군이 물밀듯이 탄현을 넘어오고 진령을 지나 황산별로 행하는 고개를 넘을 때 탄현을 지키던 은술 조역(助役)은 용산성에 들어가 흩어진 군사를 모아 그 후 백제 부흥 운동을 하고 일관했다는 설화가 전한다. 그러면 용산성은 지금의 계족산성으로 지적하고 그 남쪽인 식장산 아래 고개가 바로 탄현이 되는 셈이다.라고 말씀하시나 구전설화의 은술 조역의 활동을 드셨는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용산성에 활동하며 서라벌 용진 보급로를 차단한 세력은 복신의 세력으로 복신은 무왕의 종질로 임존성에서(예산) 승려 도침은 서부출신의 흑치상지와 백제 부흥운동을 시작했으며 무릉산성(청양, 정산 백곡리 계봉산) 이동 활동 중 661년 3월 5일 이찬 품일이 공격하기 위하여 진을 치다가 부흥군의 급습을 받고 참패하니 3월 12일 무열왕의 3왕자 김문왕이 대아찬 양도의 후속부대가 달려가서 35일동안 공격을 했지만 승리하지 못하고 철군을 했다고 기록은 전한다. 이 때 신라의 치중(병참)부대가 백제 부흥군의 습격을 받아 막대한 보급품을 탈취 당했다고 하며 이렇게 승리 후 복신 백제 부흥군은 현재 대전 계족산 용산성으로 이동 서라벌 용진간의 보급로를 차단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최선생의 가설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②보충 설명은 관산성은 식장산 동남쪽에 우뚝 솟은 산이며 성왕이 신라군에 물렸다는 구전은 관산성아래 냇물이고 성왕이 전사한 자리는 지금은 대청호의 수물로 물에 잠겼지만 옛날 대덕군 동면 내답리 진벌이다. 진벌은 오랫동안 백제왕이 전사한 자리를 이곳 사람들에 의해서 받들어 왔던 지역이며 성왕이 금강변 건너에 있는 왕자 여창이 지키는 노고성으로 퇴각하다가 여기에서 전력부족으로 전사 하였다 하여 진벌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보충설명하고 있으나 본 필자가 보기로는 본문 2장 나)의 관산성 전투와 금산에서 전투내용을 밝힌 것을 제삼 설명할 필요가 없어 간략히 답한다면 관산성 전투와 성왕의 죽음이 탄현이란 증거는 될수 없다는 것이 본 필자의 답이다. ③보충 설명은 식장산 아래 탄현으로 호칭하는 증거로는 식장산에 무수히 놓여있는 산성을 예로 들 수 있다. 식장산에는 10여개의 성터가 모두 남쪽을 향하고 축조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성터가 남쪽을 향하고 여기에서 출토되는 기와조각 그릇 조각이 삼국시대 것으로 고증이 잡힌다면 식장산은 관산성과 대치한 백제의 탄현이 틀림없을 것이고 그 고개는 틀림없이 식장산 골짜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식장산 아래쪽 산 쪽에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식장산 아래의 탄현은 백제 이후에도 이지역에 정착하는 양민들로 인해서 옥천장터, 유성장터, 새여울장터, 문의장터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였으며 비록 문헌에 탄현이라고 전해오는 기록은 당시의 것이라고는 없으나 백제 때부터 이 통로를 지나며 구전으로 전승했던 탄현과 여기에서 엮힌 이야기 지료로도 짐작할 수 있는 지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최 문휘선생은 밝히고 있으나 이항의 답변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맺는말에서 밝힐 것으로 미루고 ④보충 설명에서는 탄현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다며 신라가 사비성을 점령한 후 신라의 서라벌과 통로 하였을 때 백제 부흥군이 탄현 진령의 통로를 점거하게 됨으로 부득히 통로를 남쪽 영동서부터 금강변을 따라

금산에 이르고 이어 진산을 거쳐 논산 벌곡을 지나 황산벌을 지나서 사비성으로 통했다는 구전도 전한다. 그렇다면 금산 방면으로 추리해 보는 탄현은 신라군이 사비성을 점령한 후 통로로 삼았던 금현 숲고개 등의 지명풀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항의 본 필자의 답은 백제 부흥군이 탄현 진령의 통로를 막아서 금산방면의 통로를 개척하였다고 하나 최선생의 탄현 진령의 위치가 식장산 쪽을 의미 하는가본데 기록에 의하면 663년 당의 부대 유인원 유인계의 부대가 웅진 동쪽에서 복신의 백제 부흥군을 공격하여 지라성 및 윤성 등의 목책 등을 함락 시켰으며 백제 부흥군은 이 때 진현성에 들어가 병력을 증강 시켰다고 하는데 최선생은 이때의 진현성을 탄현 진령성으로 구전을 오해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때 부흥군은 나-당군의 협공을 받고 8백명의 전사자를 내고 다시 도주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서 신라 웅진간의 군수 수송로가 다시 트이게 되었다 한다. 그리고 사비성 점령 후 금산방면으로 탄현을 추리해보는 문제는 거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며 최문휘선생 “여기가 금산이다”의 29쪽 16행 17행에서 금산이 백제가 신라와의 접경을 이루는 지역으로 신라군과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었던 이 시기에도 금산 지역에서는 백제때 전장이었다는 기록이 없다. 라고 했는데 본 필자가 2장 나) 다) 라) 마)에서 밝힌바와 같이 554년 관산성 전투 이후 642년 647년 648년에 신라 서부 국경지대의 최대 중요 지역으로 금산 지역 및 대야성(합천)이 동시에 전장터가 되었음을 밝혔다.

제3장 역사적 기록에의한 탄현을 찾아보자.

1) 김유신 장군이 탄현을 전투 없이 돌파하다.

가. 백제 의자왕이 멸망전 의자왕 20년 어전 기록을 보자.

1,나-당 연합군이 침공을 시작한 순간에도 백제 왕궁에서 수뇌부는 사비성 방어 대책을 놓고 의견이 통일 되지 못하고 있었다. 「삼국사기」 의자왕 20년의 기록 [의자왕은 군신들을 모아 공격과 수비 중 어느 것이 마땅한지를 물었다. 좌평 의직(義直)이 나서서 말하기를 “당군은 멀리 바다를 건너 왔습니다. 그들은 물에 익숙하지 못함으로 배를 오래 탄 탓에 분명 피로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상륙하여 회복되지 못했을 때 급습하여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큰 나라의 도움을 받고 믿기 때문에 만일 당군이 불리해지는 것을 보면 반드시 주저하고 두려워서 감히 빨리 진격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당군과 결전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했다. 하므로 해서 침입하는 적의 가장 취약한 시점은 상륙 전후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의직의 계획은 방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영(常永) 등은 전혀 다른 계획을 주장한다. “당군은 멀리서 왔음으로 속전하러 할 것이니 그 서슬을 당할 수 없을 것이

며 신라군은 이전에 여러 번 패했기 때문에 우리 군의 기세를 보면 겁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계책으로는 당군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서 그들이 피곤하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일부 군사로 하여금 신라군을 쳐서 예봉을 꺾은 후에 형편을 보아 싸우게 하면 군사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나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서자 의자왕은 주저하면서 어느 말을 따라야 할지 몰랐다.

2. 사태가 급박해 지고서야 의자왕은 조정에서 쫓겨난 흥수(興首)의 현책이 아쉬웠다. 이 때 흥수는 지금 전남 장흥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다. 의자왕은 급히 사람을 보내 견해를 물었다. “당군은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군율이 엄하고 분명합니다. 더구나 신라와 함께 우리의 앞뒤를 견제하고 있으니 만일 평탄한 들판과 넓은 들에서 마주하고 대전한다면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백강과 탄현은 우리나라의 요충지로서 한명의 군사가 창 하나를 가지고도 만명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한 용사를 선발하여 그 곳에 가서 지키게 하여 당군으로 하여금 백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으로 하여금 “탄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왕께서는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면서 그들의 물자와 군량이 떨어지고 피곤해 질 때를 기다린 후 분발하여 급공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흥수의 이 현책은 5년 전에 사망한 좌평 성충의 전략과 비슷했다. 성충은 656년 의자왕의 실정을 간하다가 투옥된 끝에 백강과 탄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식음을 전폐하고 죽었던 충신이다. 그러나 대신들은 흥수를 중상모략하고 “흥수는 오랫동안 옥중에 있으면서 임금을 원망하고 애국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당군으로 하여금 백강으로 들어오게 하여 강의 흐름에 따라 배를 병진하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으로 하여금 탄현에 올라 소로를 따라 말을 나란히 몰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군사를 풀어 공격하면 마치 닭장에 든 닭이니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는 것 같을 것입니다.” 결국 의자왕은 흥수의 계책을 무시했다. 그리고 의자왕이 우물쭈물 하는 사이 신라군과 당군이 탄현과 금강을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돌파해 버렸다. 이리하여 백제는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방어책이 탄현과 백강인데 선공하느냐 후 공격 하느냐의 차이이지 두 전략지에 대한 방어는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탄현이 어디이며 어느 길로 탄현을 갔느냐는 것입니다.

나. 신라 김유신 장군의 백제 침공로, 기록을 보자.

1) 그 행로에 금산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본란에서 필자는 탄현에 이르는 신라군의 행로에 금산을 거친다는 것이고 탄현은 이에 대한 판단의 자료를 밝히면 ①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탄현에 대한 지형설명이 흥수나 성충이나 반대 세력 상영 등도 험준한 협곡임을 말하고 있으며 ②신라군의 행군로를 보면 서라벌-이천-옥천-논산(부적)으로

660년 7월 9일 김유신 공격군이 논산 부적리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다. 여기까지의 공격로를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무열왕 7년(660) 봄 이무렵 당나라의 동방정책은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평양 직공론에서 선-백제-정벌론으로 변화해 있었다. 백제를 먼저 굴복시키고 다음에 고구려를 정벌한다는 전략이다. [삼국사기] 660년 3월 당 고종이 좌무이 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행군대총관 김인문(무열왕의 차남)을 부대 총관으로 삼아 좌효위장군 유백영 등 수륙군 13만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치게 하는 동시에 칙명을 내려 무열왕을 우이도행군 총관으로 삼아 장병을 거느리고 당군을 지원토록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때 당군은 1,900척의 함선으로 수송되었다 한다. 무열왕은 5월 26일 태자범민 대장군 김유신 장군, 진주, 천존등을 거느리고 서라벌을 출발하여 6월 18일에 남천정(南川停 현 이천)에 도착하고, 이어 태자 범민은 6월 21일 김유신과 함께 대형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덕물도(德勿島)로 건너가 소정방의 당군을 접응했다.

2)그러면 여기 남천정까지(현재의 경기도 이천) 북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백제와 고구려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계략”인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다. 실제로는 백제를 치면서도 겉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하는 체 하는 교란 전술이다. 이런 신라군의 병력전개는 우선 고구려의 수뇌부로 하여금 나당 연합군이 자국을 남북에서 협공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함으로서 백제를 위해 구원군을 보내고 싶더라도 가뻛게 동병할 수 없을 테니까, 나당 연합군은 고구려군의 기동을 묶어 놓고 백제에 대해선 그 주력군을 공주 방면의 금강계선에 집결토록 유인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대병력을 서라벌에서 이천까지 일천리 이동을 하여 얻은 결실임이 틀림없다.

이 때 신라가 백제공략을 위해 동원한 군대의 숫자는 적어도 10만 이상의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추측하며 경주를 출발한 무열왕은 병력을 둘로 나누어 절반정도의 병력을 거느리고 이천으로 북상했다가 다시 남하하여, 보은 옥천에서 전군을 합류시킨 것으로 보인다. 무열왕을 따라서 이천까지 북상했다가 다시 보은-옥천으로 남하한 김유신은 옥천에서 대기 중이던 5만 규모의 정병을 공격 제대로 삼아 백제로 진격했고 무열왕은 이천까지 데리고 갔던 병력을 예비제대로 삼아 옥천까지, 60리 떨어진 상주군 모동면 백화산에 총 본부를 설치하고, 공격대를 뒷바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김유신 장군이 전술 배경 속에서 7월 9일 논산 연산면 부적리에 부대가 도착했다는 것은 모든 신라군의 출발점은 옥천인데, 옥천에서 어떤 경로로 논산 연산 부적에 도착 했는가 하는 점인데 논산 연산에 도착 했다는 사실이 바로 옥천에서 -마전-배티제-운주 삼거리의 행로였다는 것을 본 필자는 확신하며 그 증거들은 첫째는 논산 연산으로 연결된 로선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삼거리홀 통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옥천에서 금산 배티제-운주 삼거리를 택한 로선으로 추정 되는 것은 앞에서 신라 무열왕이 경주에서 이천까지 천리길을 북상했다가 남쪽 보은 옥천으로 남하했던것이, 고구려 백제에 대한 기만

전술이 금강연계 지역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654년 신라가 관상성 전투 때부터 금산 지역 및 완주 동부지역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642년 백제 의자왕도 금산 진산지역 등 40여 성을 확보하고 이어서 대야성을 공취 했다는 것이고, 647년 신라 김유신장군이 서부전선의 백제군 침략을 막기 위해서 현재의 무주 무풍면까지 진출했었고, 578년에 김유신장군이 대야성을 수복하고 금산 등 주변까지 수복시켰다는 사실이, 신라 서부국경 선상에서 전략적인 중요지대가 금산과 대야성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사실은 전략상 중요지역이기 때문일 때 바로 옥천에서 마전-배티재-운주 삼거리 지역을 포함한 것이고 “탄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되며 넷째로 후백제 견훤이 금산(현 남이면 대야리)에 경양현(景陽縣)을 설치하고 백령성을 쌓고 후 고구려와 대치했었다는 사실은 견훤은 지역이 완산이었다는 사실이고, 신라는 탄현을 지나 논산이라는 차이인데 이 두 곳을 가기 위해서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삼거리에서 좌로 가면 완산이고, 탄현을 넘어 운주 삼거리 논산 연산 부적이라는 것이 백제도, 신라가 기만하기 위해서 무열왕 김유신이 이천까지 북상했다가 옥천까지 남하했고 후 백제도 고려 왕건이 천안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공주 방면으로 후 백제를 칠 것 같은 위협을 주고는, 고려는 전격적으로 신라 일리천(一利川 현:구미)를 공격하여 낙동강 방면에서 후 백제는 참패했다는 것으로 보아, 김유신장군은 기만술에 의해 허술한 내륙 쪽 금산 “탄현”을 넘어, 전북 완산 운주 삼거리에서 우로 행로를 잡았다3.금산의 배티재(梨峙)가 “탄현”이라고 결론짓는 이유는 충신 홍수의 탄현의 지형 설명과 어전회의에서 상영의 지형설명이 금산의 배티재와 일치하고, 홍수의 성충의 그 지략이 932년후 임진란때 권율장군이 1000명의 군사로 10,000명의 일본군을 격퇴시킨 이치(배티재) 전투가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필자는 판단한다. 최문희선생의 탄현에 관한 보충설명 셋재에 관한 답변은 본문 2항의 설명으로 대신하며 김유신 백제 침공 행로는 옥천-마전-배티재(탄현)-완주(운주삼거리)라고 감히 결론을 갖는다.

금산지역 동학군의 황토현 전투와 전주성 점령의 공과

성주현/부친대

1. 머리말
2. 제원기포와 금산 점령
3. 방축기포와 황토현 전투
4. 전주성 점령과 집강소
5. 맺음말

1. 머리말

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일반적으로 금산뿐만 아니라 진산까지 포함되고 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금산과 진산이 별도의 행정구역이지만 현재는 통합되어 단일의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¹⁾ 이러한 금산지역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으로서 역사적 사건이 적지 않았다. 금산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칠백의총, 진산은 조선후기 천주교박해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금산과 진산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금산은 성리학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면 진산은 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형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형세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어느 지역보다도 보수세력과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쳤으며, 그만큼 인명의 피해도 컸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연구 성과 또한 어느 지역보다 많이 축적되었다.²⁾

1) 금산은 신라시대는 進禮郡, 고려시대는 진례현과 錦州郡 등으로 불렸다가 조선시대에 금산군으로 개칭되었다. 진산은 백제시대 珍洞郡, 고려시대는 진례군에 속했으며, 조선시대는 진산군으로 불렸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진산군이 금산군에 편입되었으며 1963년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편입되었다. 현재 금산군은 금산읍, 금성면, 제원면, 부리면, 군북면, 남일면, 남이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으로 구성되었다.

2) 양승울, 「1894년 금산지역 의회군의 조직과 활동」, 『충남사학』 10, 1998; 표영삼,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운동」, 『교사교리연구』 1, 천도교중앙총부, 1999; 이병규, 『금산 진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최근까지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매년 학술발표회를 통해 꾸준히 축적해 가고 있다.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영삼, 「1894년 금산지역의 혁명운동」(제2회, 2006); 표영삼, 「금산 동학도의 초기 기포」; 신영우, 「금산동학농민혁명 유족조사」; 신순철, 「금산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 전적지」(이상 제3회, 2007); 신영우, 「금산동학농민혁명 후 조성된 금산민보군의 비문·조사연구」; 신순철, 「금산동학농민혁명의 방향과 과제」(이상 제4회, 2007); 이동복,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는 “서장옥 선생”」; 신영우, 「1894년 금산봉기

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고부, 무장, 고창, 부안 등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호남지역과는 적지 않은 거리에 있었지만 이들 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적극 호응하였다. 이러한 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한 지역적 민란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서장을 여는 무장기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금산의 '제원기포'는 무장기포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내내 동학군과 반동학군의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금산이 반동학군의 세력이 활발하였다면 진산은 오히려 동학군의 세력이 강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그 시작과 끝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제1단계는 제원기포와 금산 및 용담 점령, 제2단계는 방축기포와 황토현 전투 참여, 제3단계는 전주성 점령 이후 집강소 설치, 제4단계는 진산기포와 금산 재점령, 그리고 제5단계는 대둔산 전투의 최후 항쟁이라 할 수 있다.³⁾

본고에서는 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중 초기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제1단계에서 제3단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첫 기포였던 '제원기포'에서 금산과 용담의 점령 과정, '방축기포' 이후 고부 황토현 전투 참여과정, 그리고 전주성 점령 이후 집강소가 설치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의 역사적 공과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제원기포와 금산 점령

금산지역에 동학이 처음 전래된 것은 언제일까. 『오하기문』에 의하면, “철종 말기에 이르러 장김은 더욱 그 학정을 더해갔음으로 백성들은 이를 모두 원망하였다. 이때 경주에 사는 최제우라는 사람이 스스로 天神이 災難을 내린다고 말하고, 文書를 만들고 謠言을 퍼뜨렸다. 呪文이라는 그 학문 역시 天主를 받드는 것인데, 西學과 구별하여 東學이라 고쳐 불렀다. 知禮와 金山 및 호남의 珍山과 錦山の 산골짜기를 왕래하면서 양민을 騙瞞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戒를 받게 하였다”라고 한 바 있다.⁴⁾ 최제우가 동학을 포교한 것은 1961년부터였으며, 경주를 떠나 남원으로 간 것은 1862년 12월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산지역에 동학이 처음 전래된 것은 1862년이였다. 이 시기에 전래된 동학은 최제우 사후 더 이상 유지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금산지

에 참여한 동학농민군 검토; 신순철, 「금산, 진산지역의 동학농민군 참여자 연구」(이상 제5회, 2008).

3)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시기적으로 5단계로 분류하는데, 신순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단계는 제원농민봉기 단계, 2단계는 진산 방축리 봉기 단계, 3단계는 5월 초순부터 9월 중순까지 농민군 주도의 집강소 시기, 4단계는 진산기포와 금산 반동민군 축출 단계, 5단계는 대둔산을 중심으로 하는 최후 항전 단계이다.(신순철, 「금산 진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연구」, 제5회 금산동학농민혁명 학술발표회, 2008. 필자 역시 5단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용어상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봉기'라는 용어보다는 당시 동학교도들이 사용하였던 '기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보고, '제원기포', '방축기포', '진산기포'라는 표기하였다.

4) 황현, 『오하기문』, 수필; 『동학농민사료총서』 1, 사운연구소, 1996, 42쪽.

역에서 동학에 대한 기록이나 활동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동학농민혁명 당시 진산에서 기포를 한(조재벽⁵⁾)이 1887년 동학에 입도하면서 금산지역에 동학이 본격적으로 포교되었다. 조재벽은 금산지역 외에도 황간, 옥천, 영동, 청산 등 충청도 지역까지 포교하였다.⁶⁾ 조재벽은 1983년 1월 광화문에서 전개한 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동학교단의 주요인물로 성장하였다.⁷⁾ 뿐만 아니라 1893년 7월 해월 최시형이 상주 왕실촌에서 청산 문암으로 이거할 때 이를 앞장서서 주선하였다.⁸⁾ 당시 해월 최시형은 김성원의 집에 기거하였는데, 그는 조재벽의 연원이었다.⁹⁾ 이외에도 금산지역에는 박능철(최사문), 최공후, 김기조, 조동현¹¹⁾ 등이 중심이 되어 동학조직을 이끌어갔다. 금산지역의 동학조직은 서장옥의 관할이었으며,¹²⁾ 이들을 중심으로 1894년 3월 동학농민혁명의 첫 기포를 하였다.

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무장기포보다 앞선 제원기포에서 비롯되었다. 「금산동도작요내력」에는 제원기포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一. 지난달(3월-필자주) 초 7일에 동학도들이 우리 고을에 속한 제원역에 모이라는 통문을 발송하였다. 장리를 특선하여 모임의 여부를 정탐해오고 품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아 오게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고을의 폐해를 바로잡는데 10개조나 된다고 하였다.

一. 초 9일 저녁 때에 주동자 몇 명이 수백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을 장터로 들어와 진을 치고 유숙하였다.¹³⁾

위의 글에 의하면, 금산지역의 동학교인들은 10개조의 폐정을 개혁할 목적으로 3월 7일 각지에 통문을 발송하였고, 8일 제원역에 집결하여 기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⁴⁾ 이어 다음날 9일 저녁에는 고을장터 즉 제원장에 도소를 설치하고 유숙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기포일은 3월 8일로 보다 분명해진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금산군수 민영숙이 정부에 보고한 내용¹⁵⁾과 「정지환순의비」¹⁶⁾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학교인들이

5) 『천도교서』 포덕 34년(계사)조;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8, 사운연구소, 1996, 229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의하면 조재벽은 황간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6) 표영삼,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 3쪽.

7) 『해월선생문집』 계사년조.

8) 『천도교서』 포덕 34년(계사)조;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8, 사운연구소, 1996, 229쪽. 『천도교서』에는 '李在壁'으로 되었으나 이는 조재벽의 오기이다.

9) 『해월선생문집』 계사년조.

10) 『천도교회사초고 부 천도교총서』 포덕 35년조; 『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9, 465쪽.

11) 「금산파화효상별구성책」,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7, 478쪽.

12) 『김낙봉이력』 계사년조;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7, 사운연구소, 1996, 378쪽.

13) 「錦山東徒作擾來歷」.

14) 1987년에 간행된 『금산군지』에는 “갑오 3월 8일 금산에 거주하는 동학교도들과 무장한 동학교인이 제원역에 회합하여 이 야면을 선봉장으로 5천여 명이 죽창과 농기를 들고 대거 금산읍으로 들어와 관아를 습격하고 문서와 각종 기물을 불사르고 서리들의 가옥을 파괴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민중을 전화 등에 넣고 보니, 무상한 백성들은 전투를 피하려 대소란이 일어났다.”라고 기술하고 있다.(『금산군지』, 금산군지편찬위원회, 1987, 205쪽)

15) 당시 금산군수 민영숙이 정부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금 전라감사 김문현의 장계를 보건데, 금산군수 민영숙이 보고를 들어 일일이 들어 이르기를, ‘동도소에서 통문을 돌려 모인 사람이 1천명 가까이 이르렀는데, 이미 그들이 신소한 문제에 대하여 그 고을에서 바로 잡았으므로 자세히 타일러서 즉시 돌려보내도록 신칙하고 10가지 조목으로 책을 만들어 써보냈으며, 고을에서 보고한 그대로를 수정하여 의정부에 올려

제원역에 집결한 것은 교통의 편리와 숙박이 용이하였기 때문이었다.¹⁷⁾

그렇다면 제원기포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는 당시 민란의 요인이 되었던 삼정의 폐해였다. 금산지역 역시 삼정의 폐해가 심각하였다. 제원기포의 동향을 감영에 보고한 금산군수 민영숙이 지적하였듯이 호장 김원택의 가혹한 수탈이었다. 뿐만 아니라 동학교인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 또한 전세, 대동, 군전, 호령 등 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건이었다. 둘째는 고부기포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풀어야 숙제가 없지 않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많은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다.¹⁸⁾ 즉 고부기포를 주도한 전봉준과 제원기포의 연원대표인 서장옥과의 관계를 먼저 지적할 수 있고, 백산에 유진하였던 전봉준은 ‘전운영을 파괴하고 나아가 폐정을 釐革하자는 내용의 격문을 비밀리에 58개 지역 동학지도자에게 띄운 바 있었다.¹⁹⁾ 이에 금산지역 동학교인들은 통문을 돌려 기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3월 8일 제원역에서 기포한 동학군은 다음날 9일 저녁 제원장으로 이동하여 도소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하루밤을 지냈다. 10일 아침 성찰을 금산관아에 보내 田稅와 大同, 軍錢, 戶歛 등과 관련된 서류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는 동학교인들이 폐정을 개혁하려고 하는 10개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당시 금산지역의 삼정도 적지 않게 문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학군의 문서열람을 하고자 한 행위에 대해(군수 민영숙은) 거절하였다. 이에 동학교인들은 관아를 습격하여 공형을 잡아 가두는 한편 서류를 탈취해 일일이 조사하였다. 즉 동학교인들은 금산관아를 점령하였던 것이다. 당시 동학교인들은 군수 또는 이속의 정치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 보다 강력하게 폐정을 개혁하기 위해 12일에 금산읍내로 집결하라는 통문을 각지에 보냈다. 이와 더불어 악질 좌수를 잡아다 태질을 하는 한편 군비를 확보하였다.²⁰⁾

3월 12일, 동학교인 수천 명이 짧은 몽둥이를 들고 구실아치들의 집을 불태웠다.²¹⁾ 『금산동도작요내력』에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一. (3월) 12일 아침 일찍 성찰이 와서 관아에 소청을 냈다. 사연은 전날 거론한 10개도였다. 특별히 허락해주기를 소원하므로 감영에 관제를 내려달라고 청하였다. 관제가 내려오기도 전에 동학도 기백명이 정제라는 쓴 깃발을 들고 나타났다. 뒤이어 각기

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일성록』 고종 31년 3월 23일조; 『고종실록』 갑오년 3월 23일조; 『승정원일기』 갑오년 3월 23일조)

16) 정지환순의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오년 봄에 이르러 동학의 무리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봉기하는 곳이 호남에서 가장 큰 소굴이 되었으며, 금산도 마찬가지로였다. 호남과 호서의 안위를 살펴보니, 동학도가 처음에 제원역에 집결하였는데, 정지환이 군민을 규합하여 김제룡 등으로 하여금 이들을 몰아내자 진산에 모였다.”(「정지환순의비」, 『금산금석문』 상, 금산문화원, 1996, 218쪽) 이 비문에 의하면 양호 즉 호남과 호서에서 동학군이 처음으로 모인 곳은 제원역임을 밝히고 있다.

17) 제원역은 금산읍에서 동쪽으로 4키로 즉 10여 리 정도 떨어져 있는 찰방역이었다.

18) 이에 대해서는 이병규, 『금산-진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 71-78쪽을 참조할 것.

19) 파계생, 『전라도고부민요실기』.

20) 「錦山東徒作擾來歷」.

21) 황현, 『오하기문』 수필; 김종익 옮김,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75쪽.

마을의 이름을 쓴 깃발을 들고 촌민 기천명이 뒤따랐다. 그중 한 깃발에는 물범성죄(勿犯聲罪)라고 썼다. 일시에 몰려들어 공리에게 개울가에 휘막을 쳐달라고 호통을 쳤다. 곧이어 막이 쳐지자 진을 정하였다. 수칙을 엄히 내려 외부인들이 엿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날 밤 초경에 일제히 동학 주문을 외었다. 그리고 물범성죄라고 쓴 깃발을 휘날리며 개울을 건너 호장 부자가 사는 집으로 가서 부숴버렸다. (중략) 보부상 班首 김치홍의 집을 부수고 접장 임한석 부부를 결박한 후 구타하였다.²²⁾

즉 동학교인들은 그동안 민폐가 극심하였던 호장 김원택, 관의 비호를 받아 백성들을 괴롭히던 보부상 김치홍과 임한석의 집을 부수고 구타하는 등 폭력을 가하였다. 이처럼 동학교인과 촌민의 위세가 불길처럼 타오르자 금산관아는 동학교인들과 촌민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는 한편 감영에 보고하였다. 감영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라감사의 보고를 받은 정부는 첫째 조사관을 파견하여 폐해를 바로 잡고 백성을 효유할 것, 둘째 제원기포의 주모자를 색출하여 효수하고 참가자의 경중에 따라 징벌할 것, 셋째 민폐의 원인을 제공한 김원택을 징벌할 것, 넷째 초기 대응에 미숙하였던 감사를 징계할 것 등을 조처안을 시달하였다.²³⁾

일단 관아에서 폐정개혁을 수용하자 동학교인들 해산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학교인들은 촌민들에게 소를 잡아 대접하였다. 그렇지만 동학교인과 촌민 간에 불화가 생겨 서로 반목하게 되었다. 이로써 제원기포를 주도하였던 동학교인과 참여하였던 촌민들은 각기 해산하였다. 그런데 촌민들은 오히려 동학교인들을 ‘도적들’ 이라고 떠들었다. 이는 동학교도들이 읍내에서 1천 냥과 관가에서 5백 냥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동학교도에게 폭행을 당하였던 보부상 김치홍과 임한석은 보부상 10여 명과 청년 수십 명을 이끌고 동학교도에게 보복하였다. 즉 제원기포의 주모자인 권전주와 김정만의 집을 부순 다음 제원으로 달려가 동학교인의 집을 부셔버렸다. 당시 제원기포를 주도한 인물은 권옥(권전주), 김순익, 심현식, 김정만, 이봉석, 백학선, 이선달, 진기서, 정유술 등 9명이었다.²⁴⁾

이상에서 볼 때 제원기포는 1894년 3월 9일이었으며, 1천여 명의 동학교인과 촌민들이 관아로 몰려가 폐정개혁 10개조를 제출하였다. 금산관아는 일단 폐정할 것을 받아

22) 「錦山東徒作擾來歷」.

23) 『일성록』 고종 31년 3월 23일조; 『고종실록』 갑오년 3월 23일조; 『승정원일기』 갑오년 3월 23일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는 관리를 따로 정하여 당일로 해당 고을로 달려가서 일체 백성의 폐단에 관계되는 것을 모두 바로 잡고 백성을 타일러서 각각 돌아가 생업에 안착하게 하며, 통문을 돌린 동학 괴수는 기한을 정하고 잡아다가 효수하여 백성들을 경계할 것입니다. 부추기는데 휩쓸리거나 위협에 못이겨 추종한 것도 역시 심히 가슴 아픈 일로써 그중에서도 역시 반드시 선참으로 맞장구치고 앞장서서 소란을 일으킨 놈이 있을 것이므로 하나하나 조사하여 경중을 구별하여 징벌할 것입니다. 고을 아전 김원택은 그가 백성에게 해독을 끼쳐 사람들의 원한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한 법조문을 적용함으로써 민심을 위로하고 풀어줄 것입니다. 해당 감사는 애초에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처리할 방도도 강구하지 않고 단지 백성들의 신소를 책으로 만들어 올려 보냈는데 감사의 직책에 있는 처지에 어찌 각 고을의 일을 강 건너 불 보듯 한단 말인가. 사리로 보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3기분의 녹봉을 건너뛰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희하다.”

24) 이들은 퇴리, 좌수, 면임, 이방, 교임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들이면서 감영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동학교인과 촌민은 기포를 해산하였으나 서로 간에 불화가 생겼다. 이들은 각기 해산하였는데, 동학교인들은 처음에 기포하였던 제원역으로 재집결하였다. 3월 9일 제원기포 이후 13일 해산할 때까지 동학교인의 활동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제원기포 이후 동학교인의 동향

일 시	거점지	주요 활동
3월 7일		제원역에 모이라는 통문 발송
3월 8일	제원역	제원역에 동학교인 집결, 기포
3월 9일	제원역 제원장	고을장터(제원시장)에 진을 치고 도소 설치 및 유숙, 촌민 합류
3월 10일	제원장관아	동학교인임을 알리는 방을 붙임, 삼정과 관련된 문서 요구, 공형 납치, 문서 조서
3월 11일	제원역	제원역으로 돌아감
3월 12일	관아 금산천	폐정개혁 10개조가 담긴 소장 제출, 금산천변에 진을 치고 동학 주문 외움, 호장 김원택 및 보부상 반수 김치홍의 집을 파괴, 보부상 접장 임한석 부부 구타
3월 13일	금산천 제원역	폐정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산, 동학교인과 촌민의 불화, 제원역에 재집결

3. 방축기포와 황토현 전투

3월 9일 제원역에서 기포한 후 금산관아를 점령, 폐정개혁안을 제출하였던 동학교인들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제원기포 5일간 금산관아와 읍내를 점령하였던 동학교인들은 13일 일단 해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학교인들은 여전히 제원역을 거점으로 그 조직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금산관아를 점령한 후 동학교인들은 용담현을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즉 동학교인들은 금산관아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폐정개혁 10개조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다음은 용담현으로 진출하였다. 당시 용담현령은 오정선이었다. 「동학당정토약기」에 의하면 제원에서 기포한 동학군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鼎善은 본시 龍潭의 縣令이었다. 東匪가 봉기하자 제일 먼저 錦山과 龍潭을 습격하였다. 아마도 淸州를 치는 길을 열고자 했음이라. 鼎善은 이를 토벌하려고 했지만, 무기가 없어서 인민들에게 도끼와 낫 따위를 들게 해서 匪徒를 쫓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거의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일단 이를 격퇴하여 龍潭 부근에는 한 사람의 적도 없게 되었다.²⁵⁾

25) 「동학당정토약기」,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국사편찬위원회, 42쪽.

즉 3월 13일 제원역으로 이동한 동학교인은 이곳에서 잠시 머무른 후 용담현으로 물러갔다. 금산관아에서의 동학교인들의 동향을 이미 들은 바 있는 오정선은 동학교인들을 토벌하려고 하였으나 처음에는 중과부적으로 위급한 지경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를 격퇴하였다고 하였다. 용담현도 금산관아와 마찬가지로 동학교인들의 요청 즉 폐정개혁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산관아와 용담현을 점령한 동학교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해산하였다. 여기에는 고부기포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제원기포에 앞서 고부에서도 1월 10일 동학교인들이 기포하여 고부관아를 접수한 후 백산으로 이동하여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⁶⁾ 그러나 백산에 있던 동학군이 3월 13일에 해산을 하자 금산지역 동학교인들도 이에 호응하여 일단 해산하였다.

한편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등 호남의 주요 대접주들은 “동학이 하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할 것이다. 우리는 살상과 약탈을 하지 않을 것이나 오직 탐관오리만은 처벌할 것”²⁷⁾을 기치로 하여,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포의 동학조직을 집결한 후 3월 20일 무장 동음치에서 포고문을 선포하고 기포하였다.²⁸⁾ 무장기포 이후 고창, 고부, 부안, 정읍을 차례로 점령한 동학군은 백산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백산대회를 갖고 새로운 지휘체계를 갖추었다. 백산대회 이후 호남지역 동학군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백산으로 집결하였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하면 3월 36일경 백산에 집결한 동학군의 지역은 34개 지역이었다.²⁹⁾ 백산에서 군량미를 확보하고 군세의 전열을 정비한 동학군은 일부를 백산에 남겨두고 4월 초 전주를 점령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백산을 중심으로 태인, 부안, 금구, 무장, 고부, 정읍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백산에 남아 있던 동학농민군은 부안의 동학농민군을 충동하여 하동면 분토동에 집결케 하였다. 이곳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은 5백여 명이었지만 부안, 고부, 영광, 무장, 흥덕, 고창 등지에서도 합류하였으며, 각각 죽창을 들었고 붉은기에는 ‘보국안민’이라고 썼다. 이들 동학군은 4월 1일 부안을 점령하고 장청에서 대기하고 있던 순영문의 포군들을 추방하였다.³⁰⁾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분전하여 세금을 거두는 폐정 등을 개혁하기도 하였다.³¹⁾

이처럼 호남 각지에서 동학군이 기포하고 백산으로 집결함에 따라 금산지역 동학교

26) 1월 10일 전봉준을 중심으로 고부에서 기포한 동학교인들은 고부관아를 점령한 후 2월 25일 백산으로 이동하여 유진하였다. 이어 ‘전운영을 파괴하고 나아가 폐정을 釐革하자는 내용의 격문을 비밀리에 58개 지역 동학지도자에게 띄웠다. 백산에서 유진하였던 동학교인들은 3월 13일에 해산하였다.

27) 황현, 『오하기문』, 수필; 김종익 역,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72쪽.

28) 박문규, 『석남역사』, 갑오년 4월조; 황현, 『오하기문』 수필;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57쪽.

29)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38, 113-114쪽.

30) “지금 이들 장정을 모으는 것은 오로지 우리들(동학농민군-필자주) 방어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은 일제히 나가서 각자가 하던 일을 중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내쫓았다.

31) 『수록』, 갑오년 4월 초5일조(『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9-10쪽).

인들도 적극 호응하여 재차 기포하였던 것이다. 금산지역 동학교인들은 즉시 통문을 돌려 4월 1일 진산 방축리에 집결하고 군진을 형성하였다.³²⁾ 동학교인들이 방축리에서 다시 기포를 하자 “금산 읍내를 돌입 사람들을 도륙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이에 유림세력과 보부상들은 동학군을 격퇴시키고 위해 의회군을 조직하였다. 특히 제원기포 때 동학교인들의 습격을 받은 바 있는 의회군은 곧바로 보복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월 초 2일 신시에 금산군 행상 김치홍, 임한석 등이 앞장서서 부르짖어 행상과 읍민 1천명을 이끌고 곧바로 진산 방축리에 동학도의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114명을 사살하고 나머지 무리들은 모두 도망하여 흩어졌다.

4월 초 2일 해시에 낸 금산 겸임 용담현감의 첩정에서, 진산군에 모인 무리들은 동학도를 쳐서 죽인 행상과 읍민들이 그날 유시에 환군하였다. 나가서 맞이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위로하였다. 묶어서 데리고 온 9명은 감옥에 가두어서 처분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³³⁾

즉 4월 2일 의회군과 읍민 1천여 명이 방축리에 집결해 있는 동학군을 공격하여 114명이 죽고 9명이 체포되었다. 그런데 의회군은 동학군의 보복이 두려워 이날 밤 금산 천변에 도훈소라는 진소를 설치하고 매일 밤 작통하여 경계를 하였다.³⁴⁾

그러나 동학군과 의회군과의 전투는 더 이상 전개되지 않았다. 이는 방축기포가 제원기포처럼 금산관아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즉 방축기포는 무장기포에 호응하여 호남지역 동학군의 연합전선에 참여하기 위해 기포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금산지역 동학군은 1백여 명 이상이 희생되는 전력이 약화되었지만 연합전선에 합류하기 위해 남하하였다.³⁵⁾

지난번에 全羅道 錦山郡 일대에 모여 있던 東學徒를 負商隊가 격파하여 일시 기세가 꺾여 퇴산했다는 것을 發 제47호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작금 양일에 받은 보고에 의하면, 동학당은 금산에서 물러났으나 그 후 얼마 안 되어 扶安村에 이르러 관청을 습격하고 군기를 약탈하는 등 점점 재기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³⁶⁾

東學徒들이 錦山에서 패주할 때에는 1,000여 명에 불과하여 모두 흩어졌으리라고 생각했으나, 1, 2일 사이에 4~5만 명으로 늘어나 扶安邑으로 들어와 官吏와 捕校를 살해하고 朴 縣監도 잡아갔으며 官穀도 모두 어떤 곳으로 운반해갔는지조차 알 길이 없고

32) 『금산동도작요내력』; 「영문에게 보낸 기별」, 『수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회, 2008, 18쪽. 「금산동도작요내력」에 의하면, 민가에서 수집 자루의 총을 탈취하였고, 대장장이를 시켜 목철 즉 탄환 3두를 준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33) 「영문에게 보낸 기별」, 『수록』

34) 『금산동도작요내력』.

35) 이병규, 『금산-진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 66쪽.

36) 「東學黨 再燃의 件」,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4쪽.

官庫안에 있던 兵器도 모두 탈취하여 현재 官府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세가 매우 확대되었다고 합니다.³⁷⁾

이 자료에 의하면, 금산지역 동학군은 보부상 즉 의회군에게 격파를 당하였지만 즉시 전세를 보강하여 4월 3일 또는 4일에 부안을 점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산지역 동학군이 연합전선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안은 이미 4월 1일경부터 연합전선으로 형성된 동학군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였다. 당시 부안의 상황을 살펴보자.

연합동학군의 한 지대는 4월 1일 부안 분토동에 도소를 설치하였다. 이들 중 일부가 성중으로 난입하였다가 분토동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붉은 기를 게양하였는데, 깃발에는 ‘보국안민’ 이라 썼고, 또 작은 깃발에는 부안, 고부, 영광, 무장, 흥덕, 고창 등 각 군현의 이름을 적었다. 또한 이들은 4월 2일 부안 공형에게 통문으로 장시에서 분전수세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안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곡 중 균량미 10석과 돈 2백 냥을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감영군이 출동하자 연합동학군 주력부대는 4월 3일 부안으로 출동하였다.³⁸⁾ 즉 금산지역 동학군이 부안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연합동학군이 점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합전선에 합류하게 되었다. 연합전선에 합류한 금산지역 동학군은 4월 5일 부안 성황산으로 진을 옮긴 후 고부 천태산을 건너 4월 6일 고부 도교산 즉 황토현에 진을 쳤다. 이때 태인의 김개남도 황토현에 합류하였다. 한편 전주를 출발한 감영군도 4월 6일 황토현 아래 잔을 쳤다.

황토현에 집결한 동학군은 3대로 나누어 세 봉우리에 각각 진을 친후 헛불을 밝히며 관군과 대치하였다. 4월 7일 새벽 가운데 불만 남기고 양봉의 불이 꺼지자 관군은 동학군이 잠든 것으로 판단하고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관군의 공격을 기다리던 동학군은 양쪽에서 관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앞쪽에서 관군을 공격하는 협공으로 관군을 대파하였다. 특히 황토현 전투에서 ‘負商’이라는 붉은 도장이 등에 찍힌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다는 기록이 있는데,³⁹⁾ 이는 아마도 금산지역 동학군의 소행이 아닌가 싶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금산지역 동학군이 연합전선에 합류하기 위해 방축에서 기포하였을 때 보부상의 보복으로 1백여 명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보부상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산지역 동학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동학군이 승리하는데 가장 큰 공과를 있었지 않았을까 한다.

37) 「東學黨에 대한 諸報告」,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4-5쪽.

38) 김인걸, 「1894년 농민전쟁 1차 봉기」,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97-98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1894년 4, 5월 承政院 開拆」에 의하면 “東學徒黨 1隊가 이달 3일 扶安縣 扶興驛으로 이동하여 집결하였고 1隊는 같은 날 泰仁縣 仁谷 北村 龍山에 유숙하였다는 것은 모두 동시에 馳啓하였고, 5일 도착한 부안현 公兪의 文狀 馳告에 의하면 ‘어제 午時頃 동학의 무리 수천 명이 또 金溝縣 院坪으로부터 와서 本縣에 모여 있던 무리들과 합세하여 동현으로 돌입하여 본현 현감은 사면으로 포위되어 인사불성이 되었고 公兪를 결박하고 군기를 탈취하였다’고 하고 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2, 국사편찬위원회)

39) 황현, 「수필」, 『오하기문』; 김종익 옮김,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80쪽. 『오하기문』에는 “보부상으로 붉은 도장을 찍은 것을 등에 붙인 사람들만 끝까지 따라 잡아 어금니를 악물고 칼을 휘두르는 폼이 마치 사적인 원수를 갚듯이 하였다”라고 하였다.

4. 전주성 점령과 집강소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이끄는 데 앞장섰던 금산지역 동학군은 연합동학군의 일원으로 정읍(7일), 흥덕과 고창(8일), 무장(9일), 영광(12일), 함평(16일)을 차례로 점령한 후 21일 장성 월평리에 진을 쳤다. 장성에는 금산지역 뿐만 아니라 호남 일대의 동학군이 총집결하여 그 수가 수만 명에 달하였다. 한편 홍계훈이 이끄는 관군은 금구와 태인(15일), 정읍(19일), 고창(20일), 영광(21일)을 거쳐 23일 장성에 도착하였다. 장성에 도착한 관군은 이학승, 원세록, 오건영 등이 지휘하는 선발대 3백여 명이었다. 이날 동학군과 관군은 황룡촌에서 일대 격전을 치렀고, 동학군은 대승하였다.⁴⁰⁾ 이 황룡촌 전투에서도 금산지역 동학군은 적지 않은 공을 세웠을 것으로 본다.

4월 23일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한 동학군은 정읍과 태인(24일), 금구 월평(25일)을 거쳐 4월 26일 전주 삼천에 도착하였다. 당시 전주성은 사실상 무방비상태였다. 장날인 4월 27일 동학군은 용머리에서부터 일자로 진을 치며 전주성으로 향하였다. 금산지역 동학군도 함께 참여한 전주성 점령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때는 4월 27일 전주 서문밖 장날이다. 무장, 영광 등지로부터 셋길로 사방으로 흩어져 오던 동학군들은 장꾼들과 함께 섞여 미리 약속을 정하여 있던 이날에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이미 다 시장 속에 들어와 있었다. 때가 오시쯤 되자 장터 건너편 용머리고개에서 일성의 대포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수천 방의 총소리가 일시에 시장판을 덮었다. 별안간 난포소리에 놀란 장꾼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뒤죽박죽이 되어 헤어져 달아났다. 서문으로 남문으로 물밀듯이 들오는 바람에 동학군들은 장꾼들과 같이 섞여 문 안으로 들어서며 한편 고함을 지르며 한편 총질을 하였다. 서문에서 파수 보는 병정들은 어찌된 까닭인지 몰라 잃어지고 자빠지고 도망질을 치고 말았다. 삼시간에 성 안에도 모두 동학군의 소리요 성 밖에도 동학군의 소리이다. 이때 전봉준 대장은 천천히 대군을 거느리고 서문으로 들어와 좌를 선화당에 정하니, 어시호 전주성은 이미 함락되었다.⁴¹⁾

즉, 장날을 이용한 동학군은 장꾼들과 섞이어 쉽사리 성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서로 약속한대로 총포를 쏘면서 진입하여 전주성을 함락하였다. 전주는 전라도의 수부일 뿐만 아니라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보관한 경기전과 시조의 위패를 봉안한 조경모가 있는 곳이다. 조선 왕조뿐만 아니라 동학군으로도 상징적인 전략적 거점이었다. 이러한 점에서도 동학군의 1차 목표가 전주성이었다. 따라서 전주성 점령

40) 당시 황룡촌 전투에 대한 홍계훈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우리 군사가 장성(長城)의 월평(月坪)에 도착하자 저들 또한 마침 황룡촌(黃龍村)에 이르러, 차츰 서로 접전하여 한 바탕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극로백(克虜伯, 크루프 소총)을 한 번 발사하자 저들 중 맞아 죽은 자가 약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10,000여 명은 악에 빠져 들고 일어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돌격하여, 30여 리를 쫓아오는데 저들은 많고 우리는 수가 적은 관계로 우리 군사는 지쳐 쓰러지면서 창황하게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겨 올 때에 대관 이학승이 분발하여 칼을 들고 뒤에서 홀로 싸우다가 병정 5명과 함께 저들에게 살해당하였다고 하니, 참혹하고 놀라움이 막심합니다. 극로백 1좌와 회선포(回旋砲) 1좌 및 실탄 얼마는 잃고 말았으니 매우 분하고 한스럽습니다.”(「光緒二十年四月二十四日 親軍壯衛營正領官兩湖招討使臣洪啓薰謹啓爲相考事」, 『양호초토동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 118쪽)

41) 신순철·이진영,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1998, 78쪽.

은 동학농민혁명의 전투에서 거둔 최대의 승리였다. 이로써 동학농민혁명의 1차 목표는 전주성을 점령함으로써 일단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3월 8일 제원기포와 4월 1일 방축기포로 동학농민혁명 대열에 참여한 금산지역 동학군은 한때 보부상과 의회군에 의해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곧바로 연합전선에 합류하였다. 이로써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의 승리, 그리고 전주성 점령으로 이어지면서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되었다.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정부에서는 청군차병을 요청하였고, 일본도 천진조약에 따라 군대를 파병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주성을 수복하기 위해 경군을 파견하였다. 동학군과 경군은 완산전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공방전을 치렀다. 5월 4일에 이르러 동학군과 정부간의 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을 수용하였다. 이에 동학군과 정부는 마침내 전주화약을 맺었다. 동학군은 5월 7일 전주성을 정부에 내어주고 각지로 돌아가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단행하면서 동학이 지향하였던 통치를 실행해 나갔다..

전주성 점령에 참여하였던 금산지역 동학군은 전주화약 이후 고향 즉 금산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금산에서 동학군의 추이를 살피던 보수세력과 보부상들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러나 전주화약에 따라 금산지역에도 집강소를 설치되었고 폐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5월 보름쯤에 동학도의 무리들이 모두 귀화하여 족히 방어할만한 것이 없다고 순영문에서 우리에게 칙령을 보냈다. 거피 전봉준이 전주에 있으면서 사사로이 전달사항을 보내 종종 도착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계속해서 각읍에 집강이 세워졌으며, 이들로 하여금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그 학정과 폭정이 전과 비교하여 줄어들지 않았다. 처음에 집강을 임명하였는데, 용담에 사는 김기조였고 다음에는 금산에 사는 조동현이었다. 그 시기는 빙탄의 땅과 같아 그 유혹하는 바에 빠져 모두 막힌 땅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금산에 사는 백성들이 노인을 지고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흩어져 도망가 온 성이 텅텅 비어있었다.⁴²⁾

이에 의하면, 금산지역에 집강소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집강은 용담 출신의 金己祚였으며, 이어 금산 출신의 趙東賢이 임명되었다. 조동현은 조재벽과 함께 1983년 2월 광화문에서 전개한 교조신원운동에 참가하였던 인물이었다.⁴³⁾ 집강소의 초기에는 용담 출신인 김기조를 임명하였으나 바로 금산 출신인 조동현이 임명된 것은 집강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⁴⁴⁾ 뿐만 아니라 금산은 일찍이 진산이나 용담보다 재지사족의 영향력이 컸으며, 보수세력과 보부상의 움직

42) 「금산피화효상별구성책」,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7, 478쪽.

43) 『해월선생문집』 계사년조.

44) 이에 비해 이병규는 동학군의 집강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조에서 중간에 조동현으로 바뀌었다고 보고있다.(이병규, 『금산·진산지역 동학농민혁명연구』, 104쪽)

임 또한 심상치 않았다. 이에 따라 동학군측에서도 보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였는데, 조재벽은 당시 황간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조동현을 대신 임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학군이 집강소는 5월 말경 보수유생과 보부상 등으로 구성된 민보군에 의해 적지 않은 위협을 받게 되었고 이후 10월까지 진산 동학군과 반동학 세력의 대립이 지속되었다.⁴⁵⁾

5. 맺음말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 8일 제원역에서 처음으로 기포하여 1895년 2월 16일 대둔산 최후의 항전까지, 즉 어느 지역보다 먼저 그리고 최후까지 항전하였다. 본고에서는 3월 8일 제원기포와 금산 점령, 방축기포와 황토현전투의 참여과정, 그리고 그 이후 전주성 점령과 집강소 설치까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까지 금산지역 동학군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금산지역 동학군은 무장기포에 앞서 1894년 3월 8일 제원역에서 기포하였다는 점이다. 3월 8일의 제원기포는 3월 20일의 무장기포보다 적어도 12일 정도 앞서고 있다. 금산지역 동학군이 제원역에서 기포한 배경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삼정의 문란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부기포의 호응이었다. 특히 고부기포에 대한 호응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금산지역 동학조직은 서장옥 관하였고, 또한 고부기포의 주도인물인 전봉준이 서장옥 계열이었다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금산지역 동학군은 폐정개혁에 적극적이었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의 폐정개혁을 요구할 때는 우선 정소를 한 후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한다. 그런데 금산지역 동학군들은 폐정개혁을 위해 직접 관아를 점령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금산지역 동학군은 호남지역 동학군의 연합전선에 적극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4월 1일 방축에서 재기포한 금산지역 동학군은 금산의 보수세력과 보부상으로 조직된 의회군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그렇지만 의회군과 대립하기보다는 보다 연합전선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금산지역 동학군의 기포는 지역적 문제보다 대국적 차원에서 ‘보국안민 광제창생’의 명분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5) 이병규, 『금산·진산지역 동학농민혁명연구』, 110-111쪽. 한편 진산 동학군의 활동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작년 東匪가 봉기한 후 지금까지 이 읍이 불탄 것은 두 번이다. 이 읍에서 30리(日本里數 3리)쯤 떨어진 곳에 珍山郡이 있는데 작년 東學徒가 일어나자 그 읍의 백성이 모두 匪徒에 가담하고, 使者를 이 鎭山縣으로 보내 東匪徒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고 날짜를 정해서 그 승낙여부를 담하라고 하였다. 鎭山縣民은 이를 縣監에게 의논하였는데 縣監이 이르되, 이번에 이와 같은 대사는 진체사람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 急速히 승낙여부를 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고, 또 이르기를 匪徒에 가담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라 했으므로 鎭山의 백성은 모두 東學徒의 권유를 거절하였다. 이것이 바로 작년 6월의 일이었다. 그 후 珍山 사람이 다시 와서 東學徒에 가담할 것을 권했지만 鎭山 사람은 또 이를 거절하였다. 이것이 결국 이 읍이 東學徒의 깊은 원한을 초래한 원인이 되고 가장 잔학한 일을 자행하게 한 연유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리하여 곧 작년 6월에 珍山의 東學徒가 대거 이 읍을 습격하고 민가를 불태우고 약탈을 자행했으며 다시 거절당하자 再擧해 와서 읍민 가운데 유지로서 조금이라도 담판에 임한 사람이면 생매장을 하거나 혹은 소나무에 결박하고 밑에서 세차게 불을 질러 태워 죽였다. 그 외에도 학살된 사람의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오늘날에 와서도 아직 시신이 강가에서 비바람을 맞고 까마귀 떼의 밥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 저기 볼 수 있다.”(『동학군정도략기』,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31쪽)

금산지역 동학군은 동학군 첫 전승인 황토현전투를 비롯하여 장성 황룡촌 전투, 그리고 전주성 점령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산지역 동학군은 고부기포에 대한 첫 호응이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전초를 여는 첫 기포로써 ‘제원기포’를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 동학군이 연합전선을 형성할 때 자신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혁명 대열에 참가하였다. 이는 금산지역 동학군이 기포한 명분이었다. 이로써 금산지역 동학군은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그리고 전주성 점령이라는 제1차 동학농민혁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논 평 문

(배항섭, 고려대 연구교수)

1. 성주현, 금산지역 동학군의 황토현 전투와 전주성 점령의 공과

‘제원기포’를 통해 무장기포보다 먼저 동학농민혁명의 단초를 연 금산 지역 농민군의 활동을 크게 ‘제원기포’에서 금산과 용담의 점령 과정, ‘방축기포’ 이후 고부 황토현 전투 참여과정, 그리고 전주성 점령 이후 집강소가 설치되는 과정 등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살피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도출해내고자 한 글이다.

금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는 글이라 생각된다.

여기서는 논평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수운 최제우가 “知禮와 金山 및 호남의 珍山과 錦山の 산골짜기를 왕래하면서 양민을 騙瞞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戒를 받게 하였다”라고 한 『오하기문』을 근거로, 또 “최제우가 동학을 포교한 것은 1861년부터였으며, 경주를 떠나 남원으로 간 것은 1862년 12월이었다”는 점을 통해 “금산지역에 동학이 처음 전래된 것은 1862년이었다.”고 하였다.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2) 3월 8일, 제원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들이 처음에는 촌민들과 합세하여 “민란”을 일으켰으나, 3월 13일경에는 “촌민들은 오히려 동학교인들을 ‘도적들’이라고 떠들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는 동학교도들이 읍내에서 1천 냥과 관가에서 5백 냥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양자 간에 틈이 생긴 까닭이 단지 이 때문인지? 다른 좀 더 깊은 이유는 없었는가?

3) 제원기포일은 3월 8일인가 9일인가. 본문과 표, 맺음말의 내용이 다르다.

4) “동학군은 일부를 백산에 남겨두고 4월 초 전주를 점령하기 위해 출발, 백산에 남아있던 동학농민군은 부안의 동학농민군을 총동하여 하동면 분토동에 집결케 하였다.”라고 하였다.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금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황토현전투, 전주성 점령의 공과. 토론문

금산향토문화연구원 원장 이동복

1. 성주현 선생께서 금산동학농민혁명은 고부, 고창, 무장, 부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봉준 중심의 호남지역과는 적지않은 거리 였지만 이들 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적극 호응 했음을 전제로, 금산지역 동학혁명은 단순한 지역적 민란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서장을 여는 무장기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금산의 제원기포”는 무장기포 보다 먼저 일어 났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내내 동학군과 밤동학군이 치열하게 대립 하였다. 금산군이 반동학군 세력이 활발했다면, 진산은 동학군 세력이 강성했다/그렇기 때문에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공유했다.

이런점에서 금산지역동학농민혁명은 다섯단계로 구분할수있다

1단계로 제원 기포와 금산, 용담 점령 2단계로 방축기포와 황토현 전투 참가 3단계는 전주성 점령이후 집강소 설치 4 단계는 진산기포와 금산 재점령 5 단계는 대둔산 전투와 최후의 항전으로 구분 해주셨습니다.

이를 비롯해 금산동학농민군의 황토현 전투 승리, 전주성 함락에공을 세운 금산동학농민군의 3월 1차동학혁명의 원천적인 역할을 밝혀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성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글 외로 앞으로 금산동학농민군의 남접과의 공동 봉기, 활동 상황의 기록이 도움될것을 믿고 여기에서 소개 하겠습니다.

가. 3월 8일 제원역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12일 금산읍을 수천명이 몽둥이를 들고 현수건을 쓰고 아전의 집을 공격 한 이들은 서장옥이 지휘하던 농민군들로, 전봉준과 일정한 연락체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상응 하려 했다한다.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7,p56) 이들 농민군은 서장옥 휘하 내지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태인 부안등지의 농민군과 조직적 연관을 갖인 세력으로 3월말에서 4월 초순사이로 금산 진산 진잠 연산 옥천 등지에서 활동한 농민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것이라한다(배항섭 앞으글 pp56,57.)

나. 이같은 금산동학군의 활동에 대해서(이러한 금산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농민군인 고부등지의 세력, 태인의 세력과 같이 하나의 세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영후 앞으글 p122),부안 고부 무장 영광 홍덕 고창 읍의 동학군과는 별도로 “금산과 태안에서 봉기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둘이면서 둘이다. 합하여 1단(團)을 이루고 3대로 분리

이항섭
금산지역
전봉준
이영후

하고 서로 상통하여 기세를 올리는데 동서에서 호응한다.”(“수록“4월5일 啓草”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5,996 p169 앞으글 이영후) 라고 하여 금산 동학농민군이 태인의 농민군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농민군의 주요한 세력으로 붐기 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번의 학술 발표가 금산동학농민혁명사의 획기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검토

-제 1차기포를 중심으로-

202

박 맹 수⁴⁶⁾

<목 차>

- I. 머 리 말
- II. 기존 연구의 문제점
- III. 새로 발굴된 사료들
- IV. 동학의 남북접 유래와 그 형성
- V. 1892-3년 교조신원운동과 남·북접의 동향
- VI. 1894년 제 1차 동학농민혁명과 남·북접의 동향
- VII. 맺 음 말

46)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I. 머리말

동학농민혁명¹⁾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동학 교단 내의 남접(南接) 세력과 북접(北接) 지도부가 1892년 음력 10월 충청도 공주(公州)에서 시작된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 단계부터 1894년 음력 3월의 제 1차 기포(제 1차 동학농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서로 대립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38년에 탈고(脫稿)하여 1940년에 간행된 오지영(吳知泳)의 『동학사(東學史)』는 충청도와 경상도 지방을 주된 기반으로 하는 북접의 최고지도자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1827-1898)은 전라도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남접을 이끌고 봉기했던 전봉준(全琫準, 1855-1895)의 제 1차 기포에 대해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강하게 비난했다고 쓰고 있다.²⁾ 이처럼 남북접이 서로 대립했다는 오지영의 『동학사』는 그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도 익산(益山) 출신의 동학 접주였다는 사실 때문에 일찍부터 신빙성 높은 사료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동학사』의 남·북접 대립설은 매천 황현(梅泉 黃玹, 1855-1910)의 『오하기문(梧下記聞)』에 실려 있는 남·북접 대립에 관한 내용³⁾과 함께 남·북접 대립설의 유력한 근거가 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는 제 1차 기포 단계에서 드러난 남·북접 대립은 사실은 제 1차 기포 이전 단계인 1892-3년의 교조신원운동 단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며, 그 대립이 가까스로 해소된 것은 1894년 음력 9월의 제 2차 기포 단계라고 주장해 왔다.⁴⁾ 그러나 이상과 같은 남·북접 대립설은 동학농민혁명 1백 주년을 전후하여 관련 사료들이 대거 새롭게 발굴 소개됨에 따라 점차 그 타당성이 의심받기에 이르렀다.⁵⁾

필자는 1995년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했던 「해월 최시형 연구-주요 활동과 사상을 중심으로-」에서 백범 김구(白凡 金九, 1876-1949)의 『백범일지(白凡逸志)』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 남·북접 대립설은 재고(再考)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⁶⁾ 그러나 당시 필자의 학위논문은 『백범일지』 등 국내에서 발굴된 한두 사료만을 근거로 남·북접 대립설을 검토했기 때문에 사료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평가를

* 이 논문은 필자가 학위논문(1996)에서 “남·북접 대립설은 허구다”는 점을 제기한 이래, 『백범일지』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새롭게 발굴된 사료들을 중심으로 남·북접 대립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개진한 논문임을 밝힌다.

1) 1894년의 농민봉기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2004년 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동년 3월 5일에 공포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동학농민혁명이라 부르기로 한다.

2)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38년), 138쪽

3) 初 東學號其黨曰布 有法布徐布 法布宗時亨 時亨號法軒故也 徐布宗徐長玉 長玉水原人也 長玉與時亨 皆從濟愚學 濟愚死 各立徒黨 (황현, 『오하기문』,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 사운연구소, 1996, 54쪽).

4) 한국의 정창렬 교수와 제일사학자 조경달 교수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정창렬, 『감오농민전쟁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년); 조경달, 『이단의 민중반란-동학과 감오농민전쟁』 (일본 동경, 이와나미서점, 1998년).

5) 동학농민혁명 1백 주년을 전후하여 새로 발굴된 사료들은 다음과 같은 사료집으로 집대성되었다. 동학농민전쟁 백주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편,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전 30권(사운연구소, 1996년)

6) 『해월 최시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5년).

받았다.⁷⁾ 그 결과 남·북접 대립을 재고할 만한 새로운 사료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남·북접 대립에 대한 재검토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학위논문 제출 이후, 남·북접 대립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일본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유학의 계기는 1995년 7월 25일에 일본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소속 후루카와(古河) 강당에서 전라남도 진도출신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이 방치된 상태로 발견된 사건 때문이었다.⁸⁾ ‘동학농민군 유골방치사건’⁹⁾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것을 계기로 필자는 1997년 4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만 4년 동안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며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한편, 새로 찾아낸 사료를 근거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그 중에서도 특히 기존의 남·북접 대립설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일본에 남아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에 대한 조사와 수집활동을 통해서 필자는 지금까지 정설(定說)로 정착되어 있던 남·북접 대립설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들, 즉 남·북접이 서로 대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연대(連帶)’ 내지 ‘협력(協力)’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봉기하고 함께 싸웠음을 증명하는 사료들을 다수(多數) 발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유학 기간 동안에 새로 발굴한 사료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남·북접 대립설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 같은 작업은 『백범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해월 최시형이 내린 기포령(起包令)¹⁰⁾이 2차 기포 때 내린 것이 아니라 1차 기포 때의 기포령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며, 지금까지 정설로 여겨 왔던 남·북접 대립설이 그 사료적 근거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해 줌으로써 제 1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줄 것으로 생각한다.

II. 기존 연구의 문제점

동학의 남·북접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의 업적이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재일((在日) 사학자 조경달(趙景達) 교수의 연구와 한국의 정창렬(鄭昌烈) 교수의 연구이다. 두 연구자의 견해로 대표되는 기존의 남·북접 대립설을

7) 위의 논문 심사 교수들의 심사평이 그랬다.

8) 1995년 7월, 일본 홋카이도대학에서 동학 농민군 지도자 유골이 방치된 채 발견된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가 나와 있다. 홋카이도대학 인골문제조사위원회, 『후루카와(古河)강당 구표본고 인골문제 보고서』(홋카이도대학 문학부, 1997년).

9) 일본 북해도대학의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방치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줄고, 「동학군 유골과 식민지적 실험-일본 홋카이도대학의 동학군 유골방치사건-」(『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10) 1894년 음력 3월의 제 1차 기포 당시부터 2대교주 해월 최시형이 기포령을 내렸다는 내용.

요약하면, “동학 교단 조직 안에는 북접과 남접이 존재하고 있었다. 북접은 동학 교단의 최고 지도자인 최시형의 지도를 받고 있었으며, 그 주된 지역은 충청도와 경상도였다. 이에 반해 남접은 동학의 하급 지도자인 전봉준이 이끌고 있었으며, 그 주된 지역은 전라도였다”라고 할 수 있다. 또 “1893년의 척왜양(斥倭洋) 운동 및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을 주도한 세력은 북접이 아니라 남접으로써, 북접은 남접의 봉기에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접의 무장(武將)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1893년의 척왜양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1894년 9월의 제 2차 동학농민혁명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남·북접의 대립이 가까스로 해소된 것은 제 2차 동학농민혁명에 즈음하여 오지영을 중심으로 한 남접 지도자들에 의한 남·북접 간의 중재가 성공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존 연구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이란 첫째, 남·북접 대립을 설명하는 주된 근거로 삼아 왔던 사료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남·북접 대립의 근거를 주로 『시천교역사(侍天敎歷史)』(1920년), 『천도교창건사(天道敎創建史)』(1933년), 『동학사』(1938년) 등 동학이 1905년 이후 천도교와 시천교 등 여러 교파(敎派)로 나뉜 뒤 경쟁적으로 편찬 간행했던 교단사(敎團史)에서 찾았다. 그런데 이들 각 교파의 교단사는 동학 교단이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을 거친 후 여러 교파로 분열된 이후에 각 교파들이 자파(自派)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편찬했던 사서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 교단사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술을 검토해보면, 당시의 역사적 실상을 동학 교단이라는 전체의 입장이나 각 지역을 망라하는 전국적 차원에서 기술 설명하기보다는 분파적 입장과 지역적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따라서 이들 교단사들은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동학 교단 동향을 객관적·총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교단사들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1차 사료, 즉 원사료(原史料)가 아니라, 원사료에 근거하여 정리한 2차 사료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연구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남접과 북접이라는 용어의 유래, 남접과 북접이라는 조직의 실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도대체 동학 교단의 남접과 북접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어디서 유래했을까? 그리고 이 남접과 북접은 동학 교단 안에서 과연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존재했던 조직들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기존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해명되고 못했다.

셋째 기존 연구들이 한결같이 남·북접 대립의 시작이라고 보는 1893년 음력 3월의 충청도 보은취회(報恩聚會)와 전라도 금구현 원평취회(院坪聚會, 금구취당이라고도 한다)가 과연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앞에서 예로 든 조경달 교수

11) 천도교 시천교축 교사 대부분이 그러하다.

와 정창렬 교수는 척왜양 운동이 한창이던 1893년 3월(양력 4월)경, 전라도 금구현 원평(院坪)에서는 최시형을 최고지도자로 하는 충청도 보은취회와는 별개로 전봉준이 지도하는 남접에 의한 금구취회가 열리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연구자는 특히 전라도 원평에서 열린 집회를 각각 ‘금구집회’(조경달)와 ‘금구취당’(정창렬)이라고 부르면서, 당시 서울 및 조선 각지의 ‘척왜양’ 격문 게시는 바로 이 전라도 금구취회를 주도했던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시형이 이끌던 이른바 북접도 남접과 똑같이 ‘척왜양’ 격문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¹²⁾ 또한 1995년 3월에 전라북도 남원에서 발굴된 『종리원사부동학사(宗理院史附東學史)』에 따르면,¹³⁾ 원평취회를 주도했던 세력은 보은집회와 대립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은취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종리원사부동학사』 외에 보은취회 세력과 금구취회 세력이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료는 또 있다. 시천교 측에서 펴낸 『신세기(新世紀)』(1924년)라는 사료가 그것이다. 이 『신세기』에 의하면, 조경달 정창렬 두 연구자가 금구취회 지도자로 꼽고 있는 전봉준마저도 보은취회에 참가하기 위해 보은 바로 인근의 원남(元南)까지 갔었다¹⁴⁾고 한다.

넷째 두 연구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1894년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남접과 북접이 대립한 것이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 하는 문제가 있다. 1894년 3월 전라도 무장(茂長)에서 전봉준이 전면 봉기를 단행할 당시 북접의 최고 지도자로 알려진 최시형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위의 기존 연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즉, 기존연구는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최시형의 행적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나 최시형이 이끌고 있던 북접의 동향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오지영과 황현의 기록에만 의존한 가운데 남·북접 대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일본 유학기간 중에 일본 외무성 산하 외교사료관(外交史料館)에서 필자가 새로 발굴한 『조선국 동학당 동정에 관한 제국공사관 보고 일건』¹⁵⁾을 보면,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른바 북접 관할 지역이었던 충청도 진잠, 옥천, 연산, 공주, 이인, 문의, 회덕, 금산 등지에서 수백 또는 수천 명 단위의 농민군이 봉기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봉기한 동학농민군을 지휘하기 위해 최시형이 통문(通文)을 발했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최시형의 행적이나 북접의 동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새로운 사실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줄고, 「동학의 척왜양 운동에 관한 사료에 대하여」(『북대사학』 39호, 훗카이도대학 사학회, 1999년 11월).

13) 『전북일보』 1995년 3월 21일 11면 및 18면 참조.

14) 이현규, 『제세주 강생 백년기념:신세기』(시천교 중무본부, 1924년), 42~43쪽

15)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사료로 문서 번호는 5문 3류 2항 4호이다. 이 사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근현대사 자료팀에서 편집하여 간행한 『동학농민 전쟁 관계 사료집』 전 6권(도서출판 선인, 2000년)에 실려 있다.

Ⅲ. 새로 발굴된 사료들

이 장에서는 『백범일지』 외에 남·북접 대립설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 해 주는 사료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1920년대 이전에 나온 동학 교단사들이 있다.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자들은 『시천교역사』(1920년), 『천도교창건사』(1933년), 『동학사』(1940년) 등 1920년대 이후 동학의 각 교과들이 펴낸 교단사들을 근거로 남·북접 대립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1백 주년을 전후하여 1920년대 이전에도 다수의 동학 교단사들이 편찬 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920년대 이전에 나온 교단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¹⁶⁾

『수운행록(水雲行錄)』(1865년)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1879년)

『해월문집(海月文集)』(1885~1892년)

『대선생사적-부해월선생문집(大先生事蹟-附海月先生文集)』(1906년)

『본교역사(本敎歷史)』(1910~1914년, 『천도교회월보』에 연재)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釋史)』(1915년)

『김낙철역사(金洛喆歷史)』(1917년)

위의 동학 교단사들은 기존 연구자들이 이용해 온 동학 교단사 『시천교역사』나 『천도교창건사』, 『동학사』 등에 비해 훨씬 더 이른 시기에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동학 교단사와 비교해 보면, 기존 사서에 없는 새로운 사실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교과에 입장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1871년 경상도 영해에서 이필제가 주도한 병란(兵亂)¹⁷⁾에 최시형이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 1892년 10월 공주취회 당시 취회 준비를 위해 공주의송소(公州議送所)가 설치됐으며, 이 공주의송소는 당시 청주 솔피(松山)에 머물고 있던 최시형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1894년 3월에 북접 교도 수만 명이 충청도 청산(靑山) 소사전(小蛇田)¹⁸⁾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둘째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들을 들 수 있다. 외교사료관에는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는 『조선국 동학당 동정에 관한 제국공

16) 이하의 동학사서들은 1996년 필자가 편집 해제하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펴낸 『한국학 자료총서 9: 동학농민운동편』에 수록되어 있다.

17) 이 변란은 종래는 이필제란, 또는 영해민란 등으로 불려 왔다.

18) 현재의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문암리 작은 뱀골.

사관 보고 일건』을 비롯하여 수백 건에 달하는 동학 관련 외교 문서들이 파일로 정리되어 소장되어 있다.¹⁹⁾ 이들 사료 속에는 이미 알려진 사료들도 있으나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 사료도 상당수 소장되어 있다. 이들 새 사료 속에는 지금까지 연구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사실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²⁰⁾

셋째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도서관(防衛研究所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계 사료들을 들 수 있다. 현재 일본 방위연구소 도서관에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던 일본군들이 남긴 작전일지, 작전명령, 전투상보, 전황보고 등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으나, 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는 그 개요조차도 한국 연구자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²¹⁾ 필자는 다행히 유학기간 동안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일본사연구소의 이노우에 카츠오(井上勝生) 교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상당수의 동학 사료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²²⁾ 이들 사료 속에도 남·북접 대립설과는 반대되는 내용들이 다수 들어 있다.

넷째 역시 일본 측 사료 가운데 주목할 사료가 바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에 파견되어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취재했던 일본의 주요 신문사 특파원(特派員)들이 남긴 기록들이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1894년 당시 일본 각지에서 간행되고 있던 일간지는 2백 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²³⁾ 그 중 조선에 특파원을 파견한 신문사만도 66개사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파견된 특파원 수만 해도 129명에 이르고 있었다.²⁴⁾ 이들 신문 기록들은 현재 도쿄대학(東京大學) 법학부 명치신문잡지문고(明治新聞雜誌文庫)와 일본 국회도서관(國會圖書館) 신문자료실(新聞資料室) 속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기사들 속에는 종래 남·북접 대립설과는 판이한 내용들이 다수 들어 있다. 그 대표적인 신문이 바로 현재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전신인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과 『미야코신문』(都新聞) 등이다. 이 『도쿄아사히신문』에 실린 조선특파원의 보고 속에는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최시형의 동향과 북접의 동향이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²⁵⁾

19) 외교사료관 소장 자료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과 같은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출고,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동학농민전쟁관계 사료에 대하여」(『동학농민전쟁관계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일본지역 근현대사자료 소장 현황에 대하여」(『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20) 위의 글, 2000 참조.

21)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개요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22) 방위 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된 동학 사료의 개요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에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23) 신문자료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과 같은 글을 참고바란다.

출고, 「1893년 동학당 사건에 관한 사료에 대하여(일본어)」(『근대 천황제의 형성 확립에 관한 기초적 연구』, 평성 8년도-10년도 과학연구비보조금 기반연구B-2 연구성과 보고서, 북해도대학 문학부, 1999년 3월)

24) 參謀本部編, 『明治 二十七八年 日清戰史』 제 8권, 140쪽: 中塚明 『歴史の偽造をただす』(日本 東京, 高文研, 1997), 108쪽.

다섯째 동학농민혁명 1백 주년을 전후하여 국내에서 새로 발굴된 사료들 가운데 종래의 남북접 대립을 부정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 사료들이 있다. 그 구체적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동비토록(東匪討錄)』(신용하 교수가 발굴하여 1976년 『한국학보』 3집에 소개,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제 6권에 재수록)

『양호전기(兩湖電氣)』(정창렬 교수가 발굴하여 1991년 『한국학논집』 19집에 소개,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제 6권에 재수록)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1994년 3월 필자 발굴하여 『한국학자료총서』 9를 통해 소개,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제 7권에 재수록)

『종리원사부동학사(宗理院史附東學史)』(1995년 3월 이진영이 발굴하여 전북일보에 소개, 프린트본)

새로 발굴된 사료 속에는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최시형의 언설과 행적을 중심으로 한 동학 교단 지도부의 동향, 이른바 북접 계열의 동학농민군 동향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김낙봉이력』에는 김낙봉(金洛鳳)이 그의 친형인 전라도 부안(扶安) 대접주 김낙철(金洛喆)의 명으로 전봉준의 봉기 소식을 전하러 충청도 청산 문암리(文岩里) 문바위골에 주재하고 있던 최시형을 방문했을 당시의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김낙봉으로부터 전봉준의 봉기 소식을 보고 받은 최시형은 “시운이니 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것이다.²⁵⁾ 이 같은 내용은 전봉준의 제 1차 봉기 당시에 최시형은 “전봉준은 사문의 난적이다”라고 했다거나,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한 사사로운 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알려진 종래의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김낙봉이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시형은 사실상 전봉준의 봉기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동학농민혁명을 1백 주년을 전후하여 새로 발굴된 국내외 사료들은 김구의 『백범일지』에서 해월 최시형 선생이 전봉준의 제 1차 봉기에 즈음하여 말씀했다는 “호랑이가 물러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서 죽을까!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²⁷⁾라는 내용이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25) 1894년 5월 20일자 2면: 「전라도 민란의 수괴」, 5월 24일자 1면: 「한경(韓京)의 경보」, 5월 26일자 2면: 「충청도의 동학당」, 5월 29일 2면: 「동학당관속보」 등 참조.

26) 「김낙봉이력」,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제 7권(사운연구소, 1996), 377쪽.

27)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돌베개, 1997), 46쪽.

IV. 남·북접의 유래와 그 형성

이 장에서는 남·북접 대립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남접과 북접이라는 용어의 유래와 그 형성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남·북접 대립설이 역사적 근거가 희박한 허구(虛構)임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북접(北接)이라는 용어의 유래와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앞에서 설명했던 동학 교단사의 하나인 『최선생문집도원기서』(1879년)에 의하면, 1863년에 최시형은 최제우에 의해 동학의 ‘북도중 주인(北道中主人)’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선생문집도원기서』 이전에 나온 『수운행록』(1865년)에는 이 ‘북도중주인’ 임명 사실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관견(管見)으로는 1865년경까지 최시형은 동학 교단을 대표할 만한 위치에 서 있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1865년경의 동학 교단은 교조 최제우의 처형(1864년 3월)으로 인한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시형보다 유교적 교양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더 영향력이 있는 지도급 인물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²⁸⁾ 따라서 이 시기에 최시형의 교단 내 위치는 유력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정도의 위상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동학 교단 내에서 최시형 중심의 지도체제는 언제쯤 확립되는 것일까? 관련 사료를 분석해 보면, 1871년 3월 10일 경상도 영해(寧海)에서 일어난 교조신원운동²⁹⁾ 실패로 이필제를 비롯한 지도급 인물들이 대거 희생되고, 1870년대 중반 최제우의 유족들이 차례로 체포되거나 사망한 뒤로 생각된다.³⁰⁾ 『최선생문집도원기서』는 바로 이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동학의 도통(道統)이 최제우로부터 최시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최시형 계열의 인물인 강시원(姜時元, ?-1894)에 의해 쓰여진 사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³¹⁾ 따라서 위의 ‘북도중주인’이라는 표현은 최시형으로 이어지는 동학 도통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으로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최선생문집도원기서』(1879년)에 등장했던 ‘북도중주인’이란 표현이 1900년대 이후에 나오는 동학사서 속에서 ‘북접주인(北接主人)’ 또는 ‘북접법헌(北接法軒)’으로 바뀐다. ‘북접주인’이라는 표현은 1906년경에 필사된 『대선생사적』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대선생사적』에 따르면, 종래의 ‘북도중(北道中)’이란 표현이 북접

28) 이 점에 대해서는 줄고, 『최선생문집 도원기서와 그 이본에 대하여』(『한국 종교』 15집, 1990년 참조).

29) 기존 연구들은 이필제가 주도한 민란 또는 병란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필제가 ‘교조신원’을 명분으로 경상도 각지의 동학교도들을 동원했다는 점, 최시형이 次魁, 즉 제 2인자로 적극 참여했다는 점에서 교조신원운동으로 부르고자 한다.

30) 최시형 중심 지도체제 확립에 대해서는 줄고, 『동학의 교단조직과 지도체제의 변천』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역사비평사, 1993년) 참조

31) 줄고, 앞의 논문(1990) 참조.

‘北接’으로 바뀌고 있다.³²⁾ 그렇다면 동학 도통의 정통성을 뜻하는 ‘북도중’이라는 표현이 왜 ‘북접’으로 바뀌었을까? 그리고 정확히 언제부터 바뀌었을까?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최시형은 188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후반의 지도체제 확립을 기반으로 삼아 강원도 남부와 충청도 북부의 산악지대를 벗어나 충청도와 전라도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동학교도들은 최시형이 주재하고 있던 처소를 ‘법헌(法軒)’으로 불렀다. 그러나 몇 년 안에 그 ‘법헌’은 최시형이 주재하던 처소라는 의미에서 최시형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의미 변화를 일으킨다. 이 시기에 최시형은 ‘북도’ 대신 ‘북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동학의 경전을 간행하거나 각지의 동학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첩지에 ‘북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동학 조직을 조직화해 나갔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1893년 11월에 전봉준과 사발통문 모의를 함께 했던 송두호(宋斗浩)와 전봉준 자신이 ‘북접주인(北接主人)’ 최시형으로부터 접주(接主)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이다.³³⁾

1893년 3월의 원평취회부터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간 내내 이른바 남접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로 알려진 전봉준이 ‘북접주인’ 최시형에 의해 접주에 임명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1864년 3월 최제우의 사후부터 1870년대와 1880년대를 거쳐 1892-3년의 교조신원운동 단계와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 단계에 이르기까지 동학 교단 내에서는 최시형만이 동학 도통의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지도자였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 연구자들이 북접과는 지향이 달랐다고 주장해 온 이른바 남접 지도자 전봉준도 최시형의 지시 또는 지휘를 받고 있었다는 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또한 동학 도통의 정통성을 지닌 북접이 이른바 남접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동학조직을 통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북접은 남접이라는 어떤 실체를 가진 조직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북도중’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동학 도통의 정통성”을 상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 즉 남접에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동학 도통의 정통성”을 상징하고 있는 북접의 의미를 기존의 연구자들은 간과해 왔던 것이다. 최시형이 북접이란 표현을 고집스레 사용했던 까닭도 바로 여기서 풀린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남접이란 용어는 어디에서 유래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접이란 용어는 1894년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1894년 이전 사료 어디에도 남접이란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조정달 교수와 정창렬 교수는 1893년 3월 충청도 보은취회에 대립하는 전라도 원평취회가 바로 남접이 주도했던 집회이

32) “대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최경상(최시형의 초명)을 ‘북접주인’으로 정하니 이후부터 나에게 내왕하는 선비들은 매번 먼저 검곡(최시형의 거처가 있던 곳)을 거쳐 오도록 하라”(『대선생사적』 『한국학자료총서 9:동학농민운동편』, 1996년, 352쪽 참조)

33) 송두호의 접주 임명 첩지는 『신인간』 320호, 1974년 9월 10월 합권호, 104쪽 참조. 전봉준의 접주 임명 사실은 『전봉준공초 4차문목』 『동학란기록』 하, 559쪽 참조.

며, 이 집회의 지도자가 바로 남접을 지휘하는 전봉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1차 사료 어디에도 남접이란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남접이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사료들은 모두 1894년 동학농민혁명기에 쓰여진 자료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1894~18950년), 『오하기문』(1894~1895년),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1894~1895년),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1894~1895년) 등 주로 관변 측 및 재야유생 측 자료에 남접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오지영의 『동학사』(1938년)는 쓰여진 시기가 비교적 후대이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한다. 이상의 사료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사료는 역시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전봉준 자신의 진술이 담긴 『전봉준공초』라 할 수 있다. 『전봉준공초』에 나오는 남접 관계 내용을 인용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문: 동학 가운데 남접 북접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있는 데 무엇에 의하여 남북을 구분하는가?

답: 호이남(湖以南)을 칭하여 남접(南接)이라 하고, 호중(湖中)을 칭하여 북접(北接)이라 합니다.

(전봉준공초 재초문목, 1895년 2월 11일, 『동학란기록』 하, 536쪽;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제 18권, 36쪽)

위의 전봉준의 진술에 의하면, ‘호이남’ 즉 전라도 일대의 동학조직을 ‘남접’, ‘호중’ 즉 충청도 일대의 동학 조직을 ‘북접’이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라도 지방 동학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북접주인’ 최시형으로부터 접주에 임명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했던 사발통문 모의 참가자의 한 사람이었던 송두호와 전봉준을 자신을 비롯하여, 부안대접주 김낙철, 김낙철의 동생 김낙봉, 익산의 오지영과 정순경(익산 출신 동학접사 鄭踏根의 부친) 등도 모두 최시형에 의해 접주 또는 육임(六任)의 직책에 임명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라도 지방의 동학 조직 즉 남접이 동학 조직 내에서 별도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최시형의 지도체제 아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접과 북접에 관한 전봉준의 진술은 동학 교단 내의 어떤 실체적 조직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라 편의상 ‘호이남과 호중’이라는 지역적 기준으로 나눈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 가지 더 보충하자면, 전봉준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동안 각종 격문 또는 포고문을 직접 작성하여 발표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격문과 포고문 어디에도 남접이란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전봉준 스스로 단 한 번도 남접이라 칭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 점 또한 기존 연구가 소홀히 해온 문제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다시 남접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일본측 사료를 하나 더 인용해 보자.

최시형의 제자로 서장옥이 있다. 학력과 재주가 출중했다. 그리고 서장옥의 제자

로 전봉준 김해남(김개남), 손화중 등이 있다. 이들 제자는 서장옥의 학력 방술이 공히 최시형의 위에 있다 칭하고 마침내 남접이라 부르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시형의 제자들은 스승에 권하여 북접이라고 불렀다. 이로써 동학당에는 남접 북접의 칭호가 있게 되었다.(『東京朝日新聞』, 1895년 5월 11일자)

이 『도쿄아사히신문』 기사 내용은 아마도 소문을 듣고 기사화한 것으로 추측되는 바,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위 신문은 전봉준과 김개남 손화중을 모두 서장옥의 제자라 하고 있으나, 이 같은 기사 내용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전봉준은 최시형에 의해 접주로 임명되었으며, 김개남 역시 1891년 6월에 최시형이 직접 그의 집을 찾을 정도로 최시형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³⁴⁾ 또한 손화중 역시 1891년 3월에 충청도 공주 신평(公州 薪坪)에 머물고 있던 최시형을 방문한 이래 줄곧 최시형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³⁵⁾ 둘째, 서장옥과 전봉준 등이 먼저 남접이라 칭했기 때문에 최시형의 제자들이 최시형에게 권하여 북접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 내용도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기술이다.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북접이란 용어는 이미 1880년대 초반부터 최시형 스스로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북접이라 칭한 이유는 동학 도통의 정통성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지 남접에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일본 신문에 실린 남·북접 관련 내용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으로 남접과 북접의 유래와 그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북접이란 용어가 남접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동학 도통의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용어였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른바 남접의 동학지도자들조차 최시형으로부터 동학지도자에 임명되고 있었다. 또한 남접이란 용어는 1894년 이후에 비로소 등장하는 용어이며, 동학 조직 내에서는 전봉준의 최후 진술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봉준이 최후 진술에서 언급했던 남·북접은 동학 조직을 편의상 호이남과 호중, 즉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뜻에서 사용하였다. 전봉준이 언급했던 남·북접은 결코 어떤 실체적 조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남접과 북접이란 용어는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었으며, 서로 대립할 만한 실체적 조직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다. 북접이란 용어는 단지 1860년대의 ‘북도중’에서 유래한 말로써 동학 도통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을 뿐이며, 남접이란 용어 역시 湖以南의 동학조직, 즉 전라도 일대의 동학조직을 일부에서 편의적(便宜的)으로 부르는 용어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34) 『해월선생문집』, 74~76쪽; 『한국학자료총서 9:동학농민운동편』, 409쪽.

35) 『본교역사』 『천도교회월보』 23, (1912년 6월), 18쪽.

V. 1892~3년 교조신원운동과 남·북접의 동향

앞 장에서 남접과 북접이란 용어의 유래와 그 형성 과정을 검토한 결과, 두 용어가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형성 과정 또한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자들이 남·북접 대립의 시작이라고 설명해 온 1892~3년 교조신원운동기 남·북접의 동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앞 장에서 적어도 1894년 이전에는 동학 조직 내에서 남·북접이라는 실체적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존 연구자들이 교조신원운동기에 남·북접의 대립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교조신원운동 단계의 동학 교단의 동향을 중심으로 남·북접 대립 문제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동학 최초의 교조신원운동은 1871년 3월 이필제의 주도 아래 최시형도 적극 가담하여 일어났던 영해병란(寧海兵亂)이다. 당시 이필제는 동학교도를 가담시키기 위해 몇 개월에 걸쳐 최시형을 집요하게 설득하여 최시형으로 하여금 영해 병란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새로 발굴된 동학측 사료 『최선생문집 도원기서』(1879년)와 『대선생사적』(1906년), 그리고 『교남공적(嶠南公蹟)』(187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과 『영해적변문축(寧海賊變文軸)』(1871년,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에 의하면, 당시 최시형은 영해 병란 참가자들을 위한 식량을 주선하고 이필제와 함께 천제(天祭)를 지냈으며, 참가자들이 서명하는 도록에 서명까지 했다고 적혀 있다.³⁶⁾ 물론 참가의 명분은 억울하게 처형당한 교조 수운 최제우의 죽음을 신원(伸寃)하겠다는 이필제의 주장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해 병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나 경상도 일대에서 참가했던 동학 교도 수십 명이 죽음을 당하고 수백 명이 체포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³⁷⁾ 병란적 성격을 지닌 영해 교조신원운동의 실패는 최시형의 일생에 두고두고 남게 되는 커다란 시련이었다고 판단된다.

영해 교조신원운동의 실패 이후 동학 조직은 더욱 가혹한 관의 탄압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경상도 중심의 조직 기반을 거의 상실한 채 최시형을 비롯한 소수의 지도자들만이 강원도 남부와 충청도 북부의 산악지대로 은신, 잠행(潛行)을 통한 지하포교 활동을 1870년대 말까지 계속하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지하포교 활동의 핵심 지도자는 최시형이었다. 최시형이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한 지하포교 활동에서 벗어나 충청도와 전라도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한 공개적인 포교활동에 나서는 시기는 지도체제의 정비와 동학 조직의 재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1880년대 초반부터이다. 그리하여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 초반의 동학 교세는 충청도와 전라도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36) 줄고, 『교남공적 해제』 『한국사학』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년) 참조.

37) 줄고, 위의 논문 참조.

충청도의 경우 단양, 청풍, 충주, 진천, 괴산, 목천, 청주, 공주, 보은, 옥천, 영동, 예산, 아산 등지를 중심으로 동학 교세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전라도의 경우는 익산, 고산, 삼례, 전주, 고부, 태인, 부안, 무장, 금구, 흥덕, 고창 등지를 중심으로 교세가 늘어났다. 전라도 남부의 경우, 순천, 광양, 장흥, 보성, 강진 등지에서도 동학 포교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유생들의 일기나 문집³⁸⁾, 관에서 발송한 공문서 등에 나타나 있다.³⁹⁾

이렇게 동학포교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자 당연히 지방관에 의한 동학 탄압이 심해졌다. 지방관들은 동학 포교에 대해 나라에서 금하는 사도(邪道)라는 명분으로 탄압에 나섰다. 일부 지방관들은 동학 금단을 구실로 삼아 교도들로부터 부당한 수탈 행위를 일삼았다. 이러한 동학 탄압은 이미 교조 최제우 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었으며, 특히 1871년 3월의 영해 교조신원운동 직후(壬申之禍亂)와 1885년(乙酉之營厄), 그리고 1889년(乙丑之冤枉)에 가장 혹독했다고 한다.⁴⁰⁾ 그 때문에 최시형은 한 때 자살을 기도하려고 까지 했었다. 이러한 탄압에 대해 동학교도들은 1864년부터 1880년대 후반까지는 몸을 피하거나 아니면 속전(贖錢; 석방금)을 지불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갔다. 그러나 1890년대 들어 동학 교세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충청도와 전라도의 지방관들에 의한 동학 탄압이 가혹하게 일어나자 동학교도들은 달라진 대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종래의 소극적 방법에서 벗어나 집단적으로 동학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지방관들에 의한 부당한 수탈을 금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학 탄압에 대한 교도들의 새로운 대응 양상이 바로 1892-3년 두 해에 걸쳐 전개된 교조신원운동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교조신원운동은 1892년 10월의 공주취회(公州聚會)에서 시작되어, 동년 11월의 삼례취회(參禮聚會), 1893년 2월의 광화문 복합상소 및 척왜양 격문게시, 같은 해 3월의 충청도 보은취회와 전라도 원평취회(=금구취회)로 발전되어 전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는 최초의 교조신원운동인 공주취회는 최시형의 반대로 인해 서장옥과 서병학 2인이 독자적으로 전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광화문 복합상소 당시 척왜양의 격문을 게시한 세력은 최시형을 중심으로 하는 북접과 구분되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접이 독자적으로 전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존 연구는 보은취회와 원평취회는 동학 조직 내에서 서로 지향이 달랐던 북접과 남접이 따로 연 집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주장을 중심으로 이들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첫째 공주취회가 서장옥과 서병학 단독으로 열었다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38) 전라도 강진 유생 박기현(朴養鉉)의 일기 등이 대표적이다.(줄고, 「박기현의 『日史』와 장흥·강진지역 동학농민전쟁」, 『역사연구』 3, 역사학연구소, 1994년).

39)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고문서 가운데는 1892-3년경 전라도 보성(寶城)에서 동학이 활발하게 포교되었음을 말해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40) 1892년 10월 17일 입의통문, 『해월문집』 『한국학자료총서 9:동학농민운동편』, 328쪽

로 한다. 동학농민혁명 1백 주년을 전후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천도교 호암수도원에서 발굴된 『해월문집』에는 1892년 10월 17일 ‘복접주인’ 이름의 「입의통문(立義通文)」이 실려 있다.⁴¹⁾ ‘복접주인’은 1880년 초반이후 최시형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입의통문」은 최시형이 각지의 동학 지도자들과 동학 교도들에게 발송한 통문임을 알 수 있다. 최시형이 1892년 10월 공주취회에 즈음하여 「입의통문」을 발송했다는 사실은 『본교역사』(1910~1914년)를 비롯하여 『천도교창건사』(1933년), 『동학사』(1938년) 등 모든 동학사서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다. 당시 최시형이 발송한 「입의통문」의 요지는 한 마디로 “교조 최제우의 신원이란 대의에 적극 참여하라”는 내용이었다.⁴²⁾ 이것은 최시형이 공주취회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근거라 할 수 있다. 또 『해월문집』에는 공주취회를 위해 공주의송소(公州議送所)가 설치됐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 이 공주의송소는 청주(淸州)로부터 오는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여기서 청주란 최시형이 주재하고 있던 청수 솔피(松山) 손천민(孫天民)의 집을 가리킨다. 공주취회를 지도하고 있던 동학 지도자들이 청주의 최시형의 지시를 받아가며 취회를 지도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1893년 2월 11일부터 전개된 광화문 복합상소를 전후하여 서울의 외국공사관과 기독교 교회당에 척왜양 격문을 게시한 세력은 최시형을 중심으로 하는 북접과는 지향이 달랐던 남접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하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동학에서 척왜양(斥倭洋) 의식이 등장하는 것은 어느 때부터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동학의 척왜양 의식은 1892-3년의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척왜양 의식은 이미 동학 창시자 최제우가 저술한 한글경전 『용담유사』와 한문경전 『동경대전』 속에 등장하고 있었다. 척왜(斥倭)에 대한 의식을 보면, 「안심가」라는 작품 속에 매우 격렬한 표현으로 나타나 있다. “개 같은 왜적놈” 따위의 표현이 그것이다.⁴³⁾ 척양(斥洋) 의식 역시 『용담유사』와 『동경대전(東經大全)』 곳곳에 등장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제 2차 중영전쟁 당시 영불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한 사실을 전해들은 최제우는 당시 조선 조정과 조선 민중들에게 퍼져 있던 위기의식을 “요망한 서양적이 중국을 침범하여 천주당 높이 세워 거 소위 하는 도를 천하에 편만하니 가소질창 아닐런가”⁴⁴⁾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처럼 동학의 척왜양 의식은 동학 창도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결코 교조신원운동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님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41) 『한국학자료총서 9: 동학농민운동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참조.

42) 위의 책 참조.

43) 『용담유사(계미판)』, 「안심가」 참조.

44) 『용담유사(계미판)』, 「권학가」 참조.

그러면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 등장하는 동학의 척왜양 의식과 동학 창도 초기의 척왜양 의식 사이에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한 마디로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 등장하는 척왜양 의식은 동학 창도 초기의 척왜양 의식을 계승하면서도 초기의 그것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조신원운동 단계의 척왜양 의식이 1876년 개항 이후 일본 및 서양 각국에 의한 침탈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동학창도 초기의 척왜양 의식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 같은 전란이나 서학의 전래에 따른 막연한 수준의 척왜양 의식이었다면,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 등장하는 척왜양 의식은 당시의 조선 민중들이 일본과 서양 각국의 침탈을 직접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왜양(倭洋)이란 실체를 구체적으로 실감하는 가운데 형성된 의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개항이후 왜양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실감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된 조선 민중들은 동학 경전 속에 녹아 있던 척왜양 의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공감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민중들은 동학의 척왜양 의식과 자신들의 그것을 아무런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 속에서 동학의 교단 지도자들은 교조신원운동의 대의명분의 하나로 척왜양 운동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척왜양 운동은 교조신원운동의 초기 단계인 1892년 10월의 공주취회부터 11월의 삼례취회, 1893년 2월의 광화문 복합상소와 척왜양 격문 게시, 동년 3월의 보은취회와 원평취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운동 방침의 하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1893년 3월 보은취회 당시에 내걸었던 ‘척왜양창의’의 기치를 높게 평가한 나머지 척왜양의 기치가 보은취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처럼 설명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구체적인 증거의 하나로 공주취회 당시 충청감사에게 제출된 「의송단자(議送單子)」에 나타난 척왜양의 내용을 제시해 본다.

방금 서양 오랑캐의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뒤섞여 있고, 왜놈 우두머리의 독이 외진에 도사리고 있으니 망극할 일이며, 음흉하게 거역하는 짝이 임금님의 수레 밑에서 자라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저희들(=동학교도)이 절치부심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왜놈 상인들은 각 항구를 두루 다니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는 이익을 제 마음대로 하니 돈과 곡식이 마르고 백성들이 지탱하고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심복 같은 땅과 인후 같은 장소의 관세와 시장세, 산림과 천택의 이익마저 오로지 바깥 오랑캐에게 돌아가니 이것 또한 저희들이 손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바입니다.⁴⁵⁾

위의 내용을 보면, 위에서 지적한 대로 개항이후 일본 및 서양 각국에 의해 빚어진 경제적 침탈, 문화적 침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공주취회에서 드러난 척왜양의 의지는 11월의 전라도 삼례취회에서도 한결같이 강조된다. 삼례취회 당시 전라감사에게 제출된 의송단자에는

45) 「각도동학유생의송단자(임진 10월)」, 『한국민중운동사자료대계:동학서』 (여강출판사, 1985년) 참조.

방금 서양 오랑캐의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뒤섞여 있고, 왜놈 우두머리의 독이 외진에 도사리고 있으니 망극할 일이며, 음흉하게 거역하는 짝이 임금님의 수레 밑에서 자라나고 있으니 이것이 저희들(=동학교도)이 절치부심하는 일입니다.⁴⁶⁾

라고 하여 공주취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척왜양을 강조하고 있다. 공주취회에서 드러난 척왜양의 의지가 삼례취회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삼례취회 후반(1892년 12월경)에 전라감사에게 보낸 상계서(上啓書)에서 동학교도들은 다음과 같이 척왜양의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방금 왜와 서양의 적이 심복까지 들어와 큰 난리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시험삼아 오늘날의 이 나라를 보건대 필경 오랑캐들의 소굴입니다. 가만히 임진년(1594년)의 원수를 생각하고 병자년(1876년)의 수치를 생각하면 차마 어찌 말할 수 있으며 차마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동방 삼천리 강산은 모두 금수들의 본거지가 되고 5백년 종사는 장차 망하여 서직(黍稷: 기장 밭)이 될 것입니다. 인의예지와 효제충신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물며 왜적(=일본)은 도리어 임진왜란 때의 패배를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란의 태(胎)를 가지고 있으며 방금 그 독을 제멋대로 일삼고 있어 위태로움이 조석에 있습니다.(중략) 저희들 수백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죽음을 가벼히 여기며 왜와 서양 오랑캐를 일소하고 격파하여 대보(大報)의 의리에 보답하고자 합니다.⁴⁷⁾

이 건의서와 동일한 내용이 『나암수록』에는 「동학당여완백서」라는 제목으로⁴⁸⁾,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의 『한국 동학당 봉기 일건』에는 「동학과 전라감사에게 보낸 건언서」 또는 「동학당 통고문」(부산성 성문에 게시한 것)이라는 제목으로⁴⁹⁾, 그리고 『취어』에는 「보은관아통고」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⁵⁰⁾ 동일한 내용이 시기를 달리하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삼남 지방 곳곳에 게시되었던 것이다⁵¹⁾

한편, 1893년 2월 11일 동학 교단 지도부 80여명은 광화문 앞에 엮드려 복합상소를 올렸다. 이 복합상소는 3일간이나 계속되었고, 복합상소를 전후하여 서울의 외국 공사관 및 교회당에 척왜양 격문이 게시되었다. 기존 연구자들은 이 광화문 복합상소

46) 「각도동학유생의송단자(임진 11월)」, 위의 책 참조.

47) 「각도동학유생의송단자(임진 11월)」, 위의 책 참조.

48) 「나암수록」,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제 2권, 369-370쪽.

49) 일본 외교사료관 소장, 『한국동학당봉기일건(사료번호 5문3류2항5호)』 참조.

50) 「취어」,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제 2권, 27-29쪽.

51)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즐고, 「동학의 척왜양 운동에 관한 사료에 대하여(일본어)」 『북대사학』 (홋카이도대학 사학회, 1999년) 참조.

와 척왜양 격문 게시를 별도의 집단이 벌인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즉 광화문 복합상소는 북접 동학 지도자들이, 척왜양 격문 게시는 동학과는 별개의 세력 또는 동학 내의 북접과는 구분되는 세력(남접)이 주도한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척왜양 의식은 동학 창도 초기부터 존재해 왔으며, 최시형이 직접 지시를 내려 열린 공주취회부터 삼례취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광화문 복합상소 당시 게시된 척왜양 격문이 동학과는 별개의 세력, 또는 동학내 북접과는 별개의 세력(남접)에 의해 게시된 것이라는 기존 연구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보다는 오히려 동학 창도 초기부터 존재해 온 척왜양 의식과 개항이후 빚어진 일본과 서양 각국의 침탈로 인해 민중들이 지니게 된 위기의식이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척왜양이란 요구가 교조신원운동 목표의 하나로 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요컨대 척왜양이란 요구는 동학이나 일반 민중이나, 동학 내의 북접이나 남접이나 그 누구도 공감하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다고 생각된다. 1893년 3월 보은취회에 모인 3만 여명의 동학교도들과 민중들이 내건 ‘척왜양창의’의 기치는 이상과 같은 배경 위에서 등장하게 된다.

셋째 교조신원운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열리는 1893년 3월의 충청도 보은취회와 전라도 원평취회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보은취회에 3만 여명의 동학교도와 일반 민중들⁵²⁾이 모여 ‘척왜양창의’의 기치를 전면적으로 내걸게 된 배경을 알아보기로 하자.

2월 복합상소 때에 사알로 하여금 구전으로 전교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스스로 물러가거라 그러면 안돈의 처분을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즉각 물러나 해산하였으며, 서로 말하기를 임금님의 덕화가 다시 크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축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해 들으니 서양 각국과 왜가 저희들이 척화(斥和)를 한다는 이유로 임금님을 위협하여 강제로 동학 사람들을 제거하도록 요청하여 창생들이 도탄에 빠져 호곡을 하고 있으니 죽히 애석해 마지않는 바이며, 임금의 신하요 백성이기 때문에 오랑캐들이 이 나라를 침략함에 이르러 임금께서 욕을 당하시면 신하가 죽는 것이 마땅한 의리이오니 어찌 살기를 욕심내어 의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창의를 일으킨 대의는 요사스러운 기운을 소멸하고자 할 따름입니다.⁵³⁾

위의 내용은 국왕의 명령을 받고 보은취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내려 온 양호선무사 어윤중에게 보은취회 지도부가 제출한 문건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보면 보은취회에 수많은 민중들이 집결하게 된 동기가 2월 복합상소 때 국왕이 내린 “안돈 처분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깨고 동학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더 강화한 데서 비롯되었

52) 이들 역시 동학 조직과 일정한 연관을 지니고 있었다.

53) ‘文章草件 東學人文(1893년 3월 26일)’, 「취어」,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제 2권, 49-53쪽.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은취회 지도부는 조정의 동학교도에 대한 강경탄압이 서양 각국과 왜(倭; 일본)로부터 위협을 받았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광화문 복합상소와 거의 동시기에 이루어진 척왜양 격문 게시에 대해 서양 각국과 일본이 군함을 파견하고 군대를 파견하여 경계를 했던 사실⁵⁴), 그리고 각국 공사들이 다투어 국왕을 만나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실과도 그 대로 일치하고 있다.

주지(周知)하듯이 보은취회의 최고지도자는 최시형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동학사료 속에서나 관변 측 사료 속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보은취회 지도부가 제출했다는 「문장초건(文章草件)」은 최시형의 지시 또는 지휘를 받아 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보은취회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초건」의 내용은 보은취회 최고 지도자 최시형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교조신원운동 당시 운동 지도부가 내건 척왜양의 요구는 동학교도나 일반 민중이나, 동학 조직 내의 북접이나 남접이나 누구나 공감하던 시대적 요구였다. 따라서 보은취회는 그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광화문 복합상소와 척왜양 격문게시운동에서 왜양의 위협과 그 실체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척왜양창의’라는 기치를 전면적으로 내걸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학 조직 내에서는 ‘척왜 양’이라는 면에서 그 지향을 달리 하는 별도의 세력은 존재할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즉 보은취회를 지도하는 세력과 그 지향을 달리하는 세력(남접)에 의해 별도의 집회가 전라도 원평에서 열리고 있었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설명은 설득력이 결여된 주장이라 하겠다.

VI. 제 1차 동학농민혁명과 남북접의 동향

제 1차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의 고부(古阜) 농민봉기로부터 시작되어 동년 3월 전라도 무장(茂長)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전면 기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제 1차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될 당시 소위 북접 지도자 즉 최시형은 남접 지도자 즉 전봉준의 봉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지금까지는 1940년에 간행된 오지영의 『동학사』의

갑오란을 당하여 전라도를 남접이라 하고 충청도를 북접이라 이름하여 서로 배척하게 되었고 (중략) 처음은 언쟁으로 하다가 차차 육박전으로 내중에는 살상 지경

54) 광화문 복합상소 당시, 일본측은 八中山 艦(야에야마 함), 烏海 艦(츠키이 함) 등을 파견하여 경계에 임했다. 이 가운데 八中山 함은 1893년 양력 4월 17일에 인천항에 입항한 이래, 4월 30일 전투훈련 및 월미도 상륙훈련, 5월 8일 영종도 등을 정찰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東京朝日新聞』 1893년 4월 18일자 및 徳富猪一郎, 『陸軍大將 川上操六, 第一公論社, 1942 참조)

에까지 이르러 자상천답(自相踐踏)의 불상사를 일으켰다.⁵⁵⁾

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남·북접 즉 최시형과 전봉준이 대립했던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1920년대 이전에 나온 동학 교단사 내용들을 보면 『동학사』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먼저 1906년에 필사된 것으로 알려진 『대선생사적-부해월선생문집(大先生事蹟-附海月先生文集)』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오년 봄에 인심이 부동하여 거칠고 잡된 무리들이 오늘 입교하면 그 다음날 행패를 부려 금지하도록 하였으나 그치지 아니하였다. 3월 어느 날 본군(本郡) 읍내 숲 우거진 냇가(靑山縣 文峇里 小蛇田; 인용자 주)에 모여 여러 모로 논의하여 규약을 정하였다.⁵⁶⁾

위의 내용은 갑오년(1894년) 봄 동학에 입교한 교도들이 동학 조직 내의 규범을 잘 지키지 않아 새로운 규약 마련을 위해 갑오년 3월 본군, 즉 청산현 문암리 소사전에 있는 숲 우거진 냇가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 속에는 전봉준의 봉기를 지칭하는 표현이나 또는 전봉준의 봉기를 비난했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단지 갑오년 3월을 전후한 동학 조직 내의 동향만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지만 “갑오년 3월 청산에서 집회가 열렸다”는 사실은 다른 교단사 사료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1910년에서 1914년까지 『천도교회월보(天道教會月報)』에 연재된 「본교역사」의 내용을 보면 갑오년 12월 기사만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을 뿐, 제 1차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실려 있지 않다. 1893년 교조신원운동기 동학 조직의 동향이 매우 충실하게 실려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왜 「본교역사」의 집필자⁵⁷⁾는 갑오년 동학 조직의 동향에 대한 집필을 생략한 것일까? 가장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해답은 그 집필 시점이 일제 치하라는 점이다. 조선을 지배를 하고 있던 일본제국주의 체제 아래에 놓여 있으면서 가장 치열하게 일제에 저항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어찌 상세하게 소개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나 일제 치하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상세하게 소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수궁이 가면서도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것은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 지도부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동학 지도부 또는 천도교 지도부⁵⁸⁾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집

55)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40년), 136쪽.

56) 「대선생사적」 『한국학자료총서 9: 동학농민운동편』, 415쪽.

57) 「본교역사」의 집필자는 吳尙俊이란 인물로 평안도 출신이다. 그는 1902년에 동학에 입교하였으며 그 해에 일본으로 파견되는 24명의 유학생 가운데 1인으로 선발되었다. 1905년 천도교 성립 이후에는 접주, 종법사를 거쳐 현기관장, 종리사, 성도관정 등을 지낸 천도교 핵심 간부였다.

58) 천도교의 교주 손병희 역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북접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대일항전에 나섰던 동학의 대접주였다.

필자 오상준이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생략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측이다 이 같은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1차 사료를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최시형 또는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북집’ 동학 교단이 제 1차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 1차 사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동학 측 사료로 부안대접주 김낙철의 동생 김낙봉의 자전적 기록인 「김낙봉이력」이 있다. 이 「김낙봉이력」에 실려 있는 관련 내용을 보기로 하자.

때마침 그 때 서장옥 관하에서 진산군 방축점에 집회소를 설치하고 전봉준과 위 아래로 서로 호응할 모양으로 수천 명이 회동한 사유가 대신사(최시형; 인용자 주)에게 들어가(하략)⁵⁹⁾

이 내용에는 최시형의 지도를 받고 있던 서장옥⁶⁰⁾이 전봉준과 호응하기 위하여 봉기했다는 소식이 최시형에게 보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 교단은 전라도의 남쪽만 봉기한 것이 아니라 충청도 일대의 북쪽도 함께 봉기한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 「김낙봉이력」에는 또한 전봉준의 봉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라도 부안에서 충청도 옥천 문바위골에 은신해 있던 최시형을 찾아 온 김낙봉에게 “이것(전봉준의 봉기) 또한 시운이니 급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⁶¹⁾ 이 같은 내용은 사실상 전봉준의 봉기를 인정하는 내용으로써 최시형이 전봉준의 봉기를 대해 비난했다는 종래 기록⁶²⁾과 분명한 차이가 난다.

한편, 최시형이 제 1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관변 측 사료에도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사료가 『동비토록』이다. 『동비토록』의 관련 기록에는

동학도 최법헌(崔法軒; 최시형을 말함--인용자 주)이 통문을 돌려 이르기를 호남의 교도들이 한꺼번에 타살당하는 것을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 초 6일(1894년 4월 6일; 필자주) 청산 소사전으로 모이라고 했다고 한다.⁶³⁾(고덕은 인용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호남의 교도들이 타살당하는 것을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는 「동비토록」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도 보인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을 보면,

59) 「김낙봉이력」 『한국학자료총서 9:동학농민운동편』, 798쪽.

60) 최시형과 서장옥의 인척 관계에 대해서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1995년, 126~128쪽 참조.

61) 「김낙봉 이력」. 위의 책, 797쪽

62) 『시천교종역사』(1915년) 및 『시천교역사』(1920년) 참조.

63) 4월 9일 금백(충청감사) 보고, 「동비토록」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제 6권 (사운연구소, 1996년), 162쪽.

본영의 교졸이 정탐한 보고를 보면 동학도 최법헌이 돌린 통문 내용에 호남에 있는 그들 무리가 모두 타살당하는 것에 대해 더 기다릴 것 없이 초 2일 청산 소사 전으로 모두 모이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⁶⁴⁾(고딕은 인용자)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동비토록」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초 6일이 초 2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데 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바로 문제의 『백범일지』에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 내용을 인용해 보자.

우리(김구 일행; 인용자 주)가 그 방(최시형 선생이 거처하고 있던 방; 인용자 주)에 있을때 선생께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그 내용은 “남도지방의 각 관청에서 동학당을 체포하여 압박하는 반면, 고부(古阜)에서는 전봉준이 벌써 병사(兵事)를 일으켰습니다” “아무 군수는 도유(道儒; 동학교도--인용자 주)의 전 가족을 체포하고 가산 전부를 강탈하였습니다” 등이었다. 선생은 진노하는 안색에 순 경상도 어조로 “호랑이가 물러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서 죽을까.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 선생의 이 말은 곧 동원령이다. 각지에서 와서 대령하던 대접주(大接主)들이 물 끓듯이 밀려 나가기 시작하였다.⁶⁵⁾

위의 『백범일지』 내용 역시 동비토록, 주한일본공사관기록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자들은 위 백범일지의 내용을 가을의 제 2차 봉기 당시의 총기포령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백범일지』를 주해한 도진순 역시 기존 견해를 따르고 있다.⁶⁶⁾ 그러나 백범일지의 “호랑이가 물러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서 죽을까.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는 동원령은 9월의 제 2차 봉기 때의 동원령이 아니라 제 1차 봉기 때의 동원령이 틀림없다. 그 같이 단정하는 1차적 근거가 위에서 인용했던 「동비토록」과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나오는 유사한 내용이다.

이상의 사료만으로도 제 1차 동학농민혁명에 즈음한 최시형의 행적이 단지 전봉준의 봉기를 비난했다고 하는 종래의 견해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지난 4년 간 일본에서 발굴한 사료 속에서 제 1차 동학농민혁명에 최시형이 적극 참여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1차 사료를 대거 발굴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새로 발굴한 사료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남접과 북접이 함께 봉기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전봉준과 최시형이 결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연대 내지 협력의 관계였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소개할 사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국 동학당 동

64) 『주한 일본공사관기록』 1 (한글본, 국사편찬위원회), 7쪽.

65) 도진순 주해, 앞의 책, 46쪽.

66) 도진순주해, 위의 책, 46쪽.

정에 관한 제국공사관 보고 일건』(문서번호 5문 3류 2항 4호)라는 사료이다. 이 사료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발(發) 제 57호: 동학당에 관한 속보」

우리(=일본) 4월(5월의 오기; 인용자주) 15일(음력 4월 11일 술시) 전라감사 전보 저들 무리의 괴수 최법헌(최시형)이 통문을 발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군진에는 아홉 개의 부대가 있는데 기로군(技路軍) 2백 명이 경솔하게 전라도 경계에 들어갔다 가 오합(鳥合)의 부대에게 패배를 당하여 우리 군 20여명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명령을 어긴 기로장은 먼저 참수를 하고 나머지 부대는 세 길로 행군을 하여 먼저 전라도 경계로 향하라. 제 일로장(一路將)은 본부의 수하 5천 명등을 거느리고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릴 것이며, 제 이로장(二路將)은 본부 수하 5천 명 등을 거느리고 약속한 경계에서 기다릴 것이며, 제 삼로장은 본부 수하 5천 명을 거느리고 사방으로 파견하여 그 외곽을 순찰하되 망동하지 말고 산의 요새를 견고하게 지키라고 하였다고 하니 이들 무리의 행동은 갈수록 통분할 일입니다.⁶⁷⁾

이 내용은 『토쿄아사히신문』 1894년 5월 29일자(양력) 2면의 「동학당란 속보」에도 그대로 보도되고 있다. 그간 우리들이 이해하여 왔던 최시형에 대한 견해와 판이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위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최시형은 제 1차 동학농민혁명에 반대 또는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도했음에 틀림없다. 위의 내용을 뒷받침 해주는 또 하나의 기록이 같은 문서 속에 들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 제 66호: 동학당 휘보」

동학당의 정형(情形)

청산(靑山: 최시형이 주재하고 있던 곳)의 무리들이 무장(茂長: 전봉준이 전면 봉기를 단행했던 곳)으로 글을 보내 말하기를 이제 황평(黃平)의 답장에 5월 그믐에 접응하겠다고 하여 동남의 여러 부(접; 인용자주)에 글을 보냈는데 회덕의 제 3대 박두령의 복로군(伏路軍)이 청영(靑營: 청주 병영) 포교에게 체포되어 지니고 있던 글과 증빙서류를 빼앗겼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지금부터는 각 집에 신칙을 해서 다시는 소루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약속한 기일 전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분노를 삭혀 망동하지 말고 지휘를 기다리도록 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⁶⁸⁾

이 내용에는 앞의 기로군이 복로군으로 바뀌어 기록되어 있는 데 기로군의 장수가 바로 충청도 회덕의 박(朴)이라는 두령이었음이 나타나 있다. 또 이 내용을 보면 청산의

6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근현대사 자료팀편, 『동학농민전쟁 관계 사료집』 제 1권(도서출판 선인, 2000년) 참조.

68) 위의 책 참조.

최시형(북접)과 무장의 전봉준(남접)이 어떤 형태인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일정한 ‘연락체계’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 ‘기일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청산의 동학농민군과 무장의 동학농민군 사이에는 서로 약속한 날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약속한 기일 전에는 망동하지 말고 지휘를 기다리라”는 내용은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도 나온다.⁶⁹⁾

한편, 최시형과 전봉준이 제 1차 봉기 이래 일정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연락⁷⁰⁾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학당:폭민(전)』에 실려 있는 성명 미상의 일본인이 제 1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상황을 정탐하여 일본군에게 보고한 「동학당여문(東學黨餘聞)」이라는 보고서에 의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본월 2일(양력 1894년 9월 2일;인용자주) 용산을 출발하여 광주, 이천, 죽산, 진천, 청주 등을 거쳐 9일에 전주에 도착하여 동학당 수령으로 세상에 알려진 김봉균(전봉준의 가명; 인용자주)을 방문하기 위해 전라감영을 찾았는데 다음날 저녁(양력 9월 10일; 음력 8월 11일)에 김의 심부름꾼에 인도되어 포정국(집장소; 인용자주) 뒷방에서 면회하고 세 시간 남짓 필담을 나누었다(중략) 전주에서 용담으로 가서 부산 상인(일본인)에게 편지를 부탁하고 다시 전주로 돌아와 청주를 거쳐 귀경길에 오르려고 했으나 이유가 있어 길을 바꿔 보은, 화령 등을 거쳐 15일(음력 1894년 8월 16일;인용자주) 상주(尙州) 능암리(綾巖里)로 최시형을 방문하였으나 부재하였다. 김(전봉준)의 소개장과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 떠나와 문경을 거쳐 마령(조령의 오기; 인용자주)을 넘어 유곡, 연풍, 충주를 지나 지난 20일 오후 6시 서울로 돌아왔다.⁷¹⁾

위의 내용을 보면, 성명 미상의 일본인이 전주에서 8월 11일에 전봉준을 만난 다음 전봉준의 소개장을 받아 상주 능암리에 머물고 있다는 최시형을 만나기 위해 8월 16일에 능암리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동학당 여문」은 동학농민군의 동향을 정탐하여 일본군에게 보고한 일본인 스파이가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검토가 있어야 할 줄 믿는다. 그러나 당시 최시형이 머물고 있었다는 상주 능암리라는 장소는 전봉준과의 면담 과정에서 인지(認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봉준의 소개장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을 찾아온 일본인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봉준이 소개장을 써 주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봉준은 1894년 4월 27일 전주

69) 『주한 일본공사관기록』 1, 한글본, 24쪽.

70) 전주성 점령 이후에도 흔적이 있다.⇒ 『도쿄아사히신문』

71) 「동학당 여문」 『동학당:폭민(전)』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참조.

성을 점령한 이후 그 해 9월의 제 2차 동학농민혁명이 있기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일본인들과 접촉한다. 한 번은 순창에서 일본 천우협(天佑俠) 회원(浪人)들과 만나고, 두 번째는 전주에서 이 성명 미상의 일본인과 만나며, 다른 한 번은 나주에서 일본인과 만난다. 일본인과 만날 때마다 전봉준은 신중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다. 이것은 전봉준의 탁월한 전략의 일환이었을 것이다.⁷²⁾ 전봉준은 여러 가지의 전략상 성명 미상의 일본인에게 정중한 예우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최시형을 찾아가도록 소개장을 써 주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전봉준과 최시형은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부터 줄곧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일본에서 발굴한 신문 사료를 통해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북접 즉 충청도 지역의 동학농민군의 동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에서는 수백 종의 일간 신문이 간행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및 동학농민혁명을 계기로 촉발된 청일전쟁의 전황을 취재하기 위해 특파원을 파견한 신문사만도 66개사 이상이었으며 조선에 특파된 특파원 수만도 129명이나 되었다.⁷³⁾ 이들 조선특파원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취재에 임하였으며, 타 신문이 입수하지 못하는 특종 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열을 올린 나머지 오보(誤報)도 적지 않았으나 일본 외무성 또는 일본 군부 즉大本營이 보도를 금지하는 기밀 사항도 다수 보도함으로써 발행정지 사태를 부르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이들 신문 가운데 『미야코신문』(都新聞)에는 다른 신문에서 볼 수 없는 동학농민혁명 관계 기사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 1차 동학농민혁명의 상황을 「전라도의 부」와 「충청도의 부」로 나누어 연재 기사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라도의 부」는 종래 널리 알려진 전봉준 중심의 제 1차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사이다. 그러나 「충청도의 부」는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다른 충청도 동학농민군의 동향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하에 보도된 날짜와 기사 제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월 12일 1면: 충청도의 부 제 1
경성과 각지의 거리
폭도 봉기의 원인
감사의 낭패와 진무병 파견
- 6월 13일 1면: 충청도의 부 제 2
문지리(문암리; 인용자주)의 난
난민 대규모로 청산에 모이다
- 6월 14일 1면: 충청도의 부 제 3

72) 전봉준과 일본인들과의 만남, 전봉준의 일본에 대한 인식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상세히 논하기로 하다

73) 『메이지 이십칠팔년 일청전사』 제8권, 140쪽.

적도 대규모로 청산에 모이다(앞에서 계속)

- 6월 15일 1면: 충청도의 부 제 4
정토사는 지원을 거부하다
적도 남포를 습격하다
- 6월 16일 1면: 충청도의 부 제 5
감사의 공상
적도 십여 읍을 점령하다
- 6월 17일 1면: 충청도의 부 제 6
감사 사구를 기습하게 하다
청주 흔들리다
조의문이 영장이 되다
적의 기책
- 6월 21일 1면: 충청도의 부 제 7
정부 또 속이다
적세 떨치지 못하다
수비병을 철수하다
경계가 오다
- 6월 27일 1면: 충청도의 부 제 8
적도 은진 및 옥천을 점령하다
감사 경병의 파견을 청하다
적도 석성으로 진격하다
원병 도착하다
전도(全道) 다시 흔들리다

1894년 6월 12일(음력 5월 9일)부터 6월 27일(음력 5월 24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충청도 지방 동학농민군의 동향을 보도하였으며, 이들 충청도 동학농민군을 지도하고 있던 인물은 최시형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⁷⁴⁾ 이 『미야코신문』의 기사는 지금까지 검토해 온 동학 교단 측 사료, 관변 측 사료,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사료, 주한 일본공사관기록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것은 『미야코신문』의 「충청도의 부」라는 동학농민혁명 관계 기사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쓰여 졌음을 의미한다.

74) 『미야코신문』 1894년 6월 13일 1면, 「충청도의 부 제 2: 난민 대규모로 청산에 모이다」 참조.

VII. 맺음 말

이상으로 종래 정설로 정착되어 왔던 남·북접 대립설이 역사적 근거가 빈약한 허구였다는 사실을 『백범일지』의 내용을 근거로 삼고, 동학농민혁명 1백 주년을 전후하여 국내외에서 새로 발굴된 사료를 중심으로, 특히 필자가 일본 북해도대학 유학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발굴한 새로운 사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남·북접 대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료가 대단히 풍부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황해도 접주 출신이었던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를 비롯하여 『대선생사적』, 『김낙봉이력』 등 동학 교단측 사료는 물론이거니와, 『동비토록』, 『양호전기』와 같은 관변 측 사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일본 외교사료관 소장사료,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사료, 일본 신문자료 등이 한결 같이 종래의 남·북접 대립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렇게 새로 발굴된 사료를 근거로 남접과 북접이란 용어의 유래와 그 형성과정을 검토한 결과, 남접과 북접은 서로 대립된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북접이란 용어는 1860년대 동학 교단에서 사용되었던 ‘북도중’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학 교단 내에서 도통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남접은 1894년 이후에 생긴 용어로 동학에서는 전봉준이 최후 진술에서 동학조직을 편의상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종래 연구에서 대립된 것처럼 여겨 왔던 남접의 동학 지도자들 모두 도통의 정통성을 가진 ‘북접주인’ 최시형의 지도를 받아 접주에 임명되었으며, 따라서 북접에 대립되는 남접은 실체적 조직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셋째, 1892-3년 교조신원운동기 남·북접의 동향을 검토하였는바, 종래 연구에서 광화문 복합상소 당시 게시된 척왜양 격문이 북접과는 별개의 세력 즉 남접에 의해 게시되었던 것으로 이해하여 온 견해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890년 초반의 척왜양 의식은 초기 동학 경전에 나타나는 척왜양 의식과 일정한 관련을 갖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었으며, 교조신원운동의 첫 집회였던 1892년 10월의 공주취회에 서부터 척왜양의 요구는 동학 지도자 및 동학교도 공통의 목표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1893년 3월 교조신원운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열린 보은취회에서 모여든 동학교도들과 민중들이 내걸었던 ‘척왜양창의’라는 기치는 결코 동학 내의 일부 세력의 요구가 아니라 동학교도와 일반 민중, 북접과 남접이 모두 공감했던 시대적 요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은취회와는 지향이 다른 남접에 의해 전라도 원평취회가 열렸다는 종래의 연구는 설득력이 약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끝으로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최시형의 행적 및 소위 북접 즉 충청도 동학농민군의 동향을 일본에서 새로 발굴한 사료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최시형은 전봉준의 봉기에 반대했거나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운이니 금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사실상 봉기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백범일지』의 “호랑이가 물러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서 죽을까.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라는 최시형의 동원령이 바로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내려진 기포령이었음을 관변측 자료와 일본 측 자료를 통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새로 발굴된 사료에 의하면, 최시형은 제 1차 봉기, 즉 제 1차 동학농민혁명단계부터 충청도 일대의 동학농민군을 지휘하면서 전봉준과 일정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새로운 사료에 따르면, 최시형과 전봉준은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단계부터 집강소 통치기에 해당하는 1894년 음력 8월 까지도 서로가 거처하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정도로 긴밀한 ‘연락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남·북접 대립설, 즉 최시형과 전봉준의 대립설이 허구였음을 『백범일지』를 비롯한 관련 사료를 통해 논증하였다.

동학의 남·북접 대립설이 허구였음에도 불구하고 1백년이 넘도록 연구자들의 발목을 잡아 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이유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국가 건설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해 왔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근대국가건설의 운명을 짊어지고 그것을 방해하는 외세, 즉 일본군에 맞서다 처절하게 희생당하였다. 필자는 그 역사적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여 최시형 선생과 전봉준 장군은 죽는 순간까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잃지 않았을 것으로 믿어 왔다. 그 같은 생각을 한 가장 간단한 이유는 ‘외세’에 대한 두 분의 대응 태도에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진실’은

1백년이 넘도록 이 땅의 연구자들과 민중들에 의해 무시되어 왔다. 일찍이 백범 선생께서 자서전을 통해 남·북접 대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김지하 시인이 남·북접 문제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할 것을 선구적으로 제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역사가들과 민중들은 허구를 사실로 믿어왔다. 참으로 낮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뒤늦게나마 최시형 선생과 전봉준 장군 두 분 사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논문, 동학의 남·북접 대립설이 날조된 허구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비단 한 아비에 거적 자손’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2009년 11월 26일)

논 평 문

(배항섭, 고려대 연구교수)

2. 박맹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검토 -제 1차기포를 중심으로-

동학 교단 내의 남접 세력과 북접 지도부가 1892년 음력 10월 충청도 공주에서 시작된 교조신원운동 단계부터 1894년 음력 3월의 제 1차 기포에 이르기까지 서로 대립해 왔다고 설명하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비판하고 그렇지 않았음을 논증한 글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새로 발굴된 자료를 통해 필자의 논리를 실증적으로 구성해내고 있다.

역시 논평자의 소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남북접 간의 갈등 여부는 자료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갈등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전혀 근거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갈등설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들만을 추려서 정리한다면 그에 대해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단순 반박을 넘어서서 동학농민혁명에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갈등설이든 그와 반대되는 설이든 서로 반대되는 자료들까지 포괄하여 설득력있는 논지를 구성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 박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동학 최초의 교조신원운동은 1871년 3월 이필제의 주도 아래 최시형도 적극 가담하여 일어났던 영해병란이다.”고 하였다. 이필제가 교조신원을 내걸며 최시형을 가담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형태 면에서 부사를 살해한다든가, 교조신원에 대한 요구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 이후의 신원운동과는 크게 다른 면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동학창도 초기의 척왜양 의식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 같은 전란이나 서학의 전래에 따른 막연한 수준의 척왜양 의식이었다면,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 등장하는 척왜양 의식은 당시의 조선 민중들이 일본과 서양 각국의 침탈을 직접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왜양(倭洋)이란 실체를 구체적으로 실감하는 가운데 형성된 의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개항이후 왜양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실감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된 조선 민중들은 동학 경전 속에 녹아 있던 척왜양 의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공감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민중들은 동학의 척왜양 의식과 자신들의 그것을 아무런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 속에서 동학의 교단 지도자들은 교조신원운동의 대의명분의 하나로 척왜양 운동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 동학경전에서부터 “척왜와 척양”의 생각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제2차 삼례취회 무렵의 방문에서부터 <척왜척양>이 하나의 용어로서 전면에서 등장하는 반면, 복합상소 이후 교조신원에 대한 요구는 방문이나 격문류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광화문 복합상소 당시 게시된 척왜양 격문이 동학과는 별개의 세력, 또는 동학내 북접과는 별개의 세력(남접)에 의해 게시된 것이라는 기존 연구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 복합상소 시기 게시된 패서는 그 전후에 동학교도 측의 방문과 달리 발신자의 의미가 모호하고 화이론적 세계관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동학교도였다면 자신들의 명의를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5) “서장옥이 전봉준과 호응하기 위하여 봉기했다는 소식이 최시형에게 보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 교단은 전라도의 남접만 봉기한 것이 아니라 충청도 일대의 북접도 함께 봉기한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 1894년 3월 전라도에서 남접의 기포가 일어나자 교단은 都禁察을 정해 各包를 단속하도록 하였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의 통유문과 계척문을 돌려 교도들을 금찰하였다. 또 3월 말에서 4월 2일 이전 무렵에 서장옥 세력이 진산 방축점에 모여 전봉준과 호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최시형은 진노하며, 당장 해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당장 해산하라는 최시형의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 방축리에 도착한 金洛鳳은 서장옥 진영의 위세에 압도되어 해산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최시형이 자기에게도 “속히 내려가 협응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전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4월 9일 소사전에 모이라는 통문도 이러한 맥락과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고(1차 동학농민혁명을 중심으로) 토론문

금산향토문화연구원 원장 이동복

박맹수 교수님의 이번 논문으로 동학농민혁명사에 이론(異論)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 해왔던 일 이었는데, 필요한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기존연구의 문제점과 새로 발굴된 사료들에서 1차 1894년 3월 동학농민혁명 봉기에 있어 교주 최시형 선생을 비롯 최고 지도부 구성의 김국연 손천민 손병화의, 무력투쟁에 대한 반대로 알고 왔는데 박교수님의 사료 제시에 의해 1차봉기시 동학교 지도부가 3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이해에 접근이 이루어졌고,
2. 공주집회, 삼례집회, 광화문 복합상소, 보은집회 까지 중에 공주집회만 서장옥 서병감이 주동했다고 알고 있었으나, 최시형 교주의 직접 지도의 자료 제시로 공주집회도 최시형 선생의 인정을 받고 시행 했음을 이해했습니다,
3. 남,북접의 문제는, 동학교 지도부의 분열이 없었다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맺는말>

가) 박교수께서 이번 발표해주신 논문으로 금산지역 동학농민 혁명사를 통하여 알게된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북접과 남접의 호칭 문제에서 우리 금산 동학농민혁명이 서장옥 선생의 서포에 속해야하는 문제인데 어찌 북접에 속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 왔는데 문제가 간단히 해결됐고,

나). 박교수님께서 최시형 교주와 전봉준 장군과의 연계속에서 1894년 3월의 1차 동학농민혁명봉기가 이루어 졌다고 단정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제 강점기에 확립된 오류된 역사 관점 에서, 이번의 “동학농민혁명 재고”와 같이, 이병규의 (2002년 박사논문)에서 “지역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동학농민혁명연구에서 1894년 당시 각지역에서 일어난 개별사건에만 관심을 갖고 설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전개와 관련하여 각지역에서 일어난 농민군 봉기와 지역의 역사적 조건과 상황을 유기적으로 파악하는것이 중요한데, 그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는 것이다. 전라도(현충청도) 금산 진산 지역 일어난 농민군의 봉기에 대해 주목 하고저 한다. 금산과 진산은 전봉준 장군중심의 주력이 활동 했던 고부,고창,무장과 100km 떨어진 곳 이었지만,전봉준 1차봉기에 부응하여 봉기하였다. 이러한 금산진산 지역 농민봉기는 단순한 민란이 아닌 동학농민혁명 시작이라 할수 있는 무장기포 3월

20일 전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데서 주목된다. 즉 금산,진산지역은 동학농민혁명 시작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의 금산동학농민혁명 봉기는 꺼져가는 고부농민봉기의 불씨를 되 살려줬고 1894년 3월 1차 농민전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다). 박교수님의 동학혁명에 대한 재검토,20p에서 밝히신 “”김낙봉이력“에서 제시된 ”때마침 그때 서장옥 관하에서 진산군 방축점에 집회소를 설치하고 전봉준과 위 아래로 서로 호응할 모양으로 수천명이 회동한 사유가 대선사에게 들어가 ...“ 이내용으로도 최시형 교주와 서장옥 선생과의 관계가 이전에는 동학농민혁명의 기포가 서포 라는 논리는 본론문으로 해명되었다면 더욱 확실 해진것은 서장옥선생의

1)3월 1차동학농민혁명 전단계 공주집회 삼례집회가 서장옥등 강경 세력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지는것이고,

2).광하문 복합상소에서 “척왜양”의 구호는 서장옥,서병학등의 로 주장으로 경성 시내 외국인 주택지 외국 공관에 피서 사건이, 이루어진것임이 확실하고, 복합상소에 미온적인 탄원운동에 “교도들을 군복을 입히고 군대와 협력하여 정부 간당을 소탕, 조정 공격”을주장 했지만“ 최시형에 거절된 사실,

3)보은집회시 원평에 모인 남접과 따로 모였다는 것은 당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이 서장옥 선생과 함께하고 있었음에, 이젠 더 불 필요한 예기가 필요치 않을 것이고,

라). 1894년 3월의 1차 동학농민봉기가 금산동학농민 봉기가, 3월 20일 전봉준의 고부 공음의 봉기 보다 12일 빠른 3월 8일에봉기 되었고,

1) 이때의 전봉준의 1월10일 농민 봉기 이후 3월 20일 공음 봉기 과정을 살펴 보면 @1월10일 말목장터 봉기, 관아점령, 수세로 걷어드린 1.400석 양곡을 농민에게 나누어 주고, 만석보에 달려가 이를 혁파했다.—17일 말목장터에 다시 진출 — 10일후 박원명 군수 부임 간청에 해산 — 3월초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 — 3월1일 박원명의 회유로 해산 — 3월초 이용태 주민 강경 진압— 3월3일 고부민란 완전 해산 — 13일 전봉준 손화중에 피신 — 3월20일 “농민혁명봉기”

이와 같이 고부농민과 전봉준사이 생각의 차이가 있어, 어려움과 긴장의 순간이 있었지만 외부 동학군의 지원 으로 3월 20일 공음 당산에서 1.000명으로 봉기 함.

@ 전봉준의 간과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그의 동학 교도 입도가 1892년 12월 하순 이었다는 것이 동학교 교단과 타지역 접주에게 동원령이라든가 하는 지위에 있을수 없다는 것을 강조 안할수없다.

@위와 같은 사실과 일본 영사관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1).전봉준 김개남 손화중등이 서장옥 선생의 수하 제자로 호칭 하는 사실과, 서장옥 선생이 그들과 원평에 봉기 했을때 같이 있었다는 사실, 서장옥 선생이 남접을 조직시켰다는 기록으로 보나,

2).서장옥 선생 관하 4월2일 진산 방축점에서 금산 민보군 의 공격을 받고 114명을 살육 당하고도 4월2일 금산민보군의 보복을 뿌리치고 부안 전봉준 장군 부대에 합류키 위해 일본영사관 기록에 나타난 인원이 4만—5만명 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3월 하순부터 금산동학농민군이 남접지역에서 활동했다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금산의 중학농민혁명 봉기가

1894년 3월8일로 전봉준 장군 보다 12일 먼저 금산 제원역/진산 방축점에서 동시 봉기 했고 3월 12일 서장옥 지휘 하의 수천명의

농민군 수천명이 몽둥이를 들고 흰수건을 쓰고 읍내에 있는 아전의 집을 공격했다 합니다. 위와 같은정황 근거는 북접과 남접을 아울러 장악한 서포 지휘자 서장옥 선생 많이 할수있다는 판단의 말씀을 드리며 맞칩니다.

제7회 금산동학농민혁명 학술발표회

- 발행일: 2009년 12월 4일
- 발행인: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동복
(h.p: 010-9335-3634)
- 발행처: 금산인쇄사(☎041-753-5148)

1894년 금산 봉기에 참여한 동학농민군 검토

申 榮 祐(충북대 사학과)

< 차 례 >

1. 머리말
2. 금산 동학농민군의 지도부와 서장옥
3. 금산에서 활동한 충청도 지역의 동학농민군
4. 맺는 말

1. 머리말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농민들에게 지방관아가 갖는 위상은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높은 것이었다. 범죄를 저지르면 잡혀가거나 조세를 내지 못할 경우 향리가 나와서 강제로 거둬가는 힘이 있었다. 따라서 동학에 들어간 농민들이 무장봉기를 한다는 것은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한 군현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서로 알고 지내고 있었다. 대대로 이어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공무를 보는 향리들은 관할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더구나 오가작통과 같이 다섯 집을 묶어서 서로 감시하는 제도가 있고, 한 집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올 경우 연좌제라고 하는 공동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후환 때문에 관아에서 금지하는 일은 하지 못했다.

전국에서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사건이었다. 한 군현에 살던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읍내에 들어가고 관아를 점거하는 일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명분은, 잘 알려진 바처럼,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척왜(斥倭)였다. 백성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명분이 있다고 해도 농민들이 무장활동에 쉽게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학농민군은 동학이라는 조직망과 그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무장봉기가 가능하였다. 금산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은 구성은 다양하였다.

우선 금산 한 지역에서 조직된 동학농민군만 활동한 것이 아니었다. 진산과 영동 그리고 옥천 등지의 동학 조직에서 오기도 했고, 그밖에 다른 여러 지역에서 합류하였다. 이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동학의 대접주 조직이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각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은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부가 나타나는 것은 당시 여건상 불가능하였지만 몇 개의 군현을 아우르는 권역에서는 대접주의 영향력에 따라 연합지도부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금산에서 이 같은 지도부가 활동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

러 지역에서 모인 동학농민군이 함께 활동한 사실은 드러난다. 그런 까닭에 지도부의 성격 파악은 참여자의 구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금산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을 검토하기 위한 이 글은 금산 동학농민군 지도부에 영향을 미쳤던 서장옥에 관해 검토를 하고, 충청도 지역에서 금산 봉기에 참여한 인물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조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지역 사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금산 동학농민군의 지도부와 서장옥

금산의 동학세력은 조재벽(趙在壁) 대접주의 조직이 중심이었다. 동학은 포(包)와 접(接)으로 이루어진 연원조직을 토대로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조재벽 포는 충청도와 전라도의 여러 군현인 청산(靑山), 옥천(沃川), 황간(黃澗), 영동(永同)과 함께 연산(連山) 고산(高山)의 일부 지역 그리고 진산에 걸쳐 있었다. 금산의 일부 지역도 조재벽 포에 속해 있었고, 금산에서 봉기할 때 이들 포조직 전체를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금산의 동학 조직을 밝혀주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재벽 포와 다른 포가 어떻게 연합해서 활동했는지 그 관계는 잘 알 수가 없다.¹⁾

동학 교단은 교주 최시형(崔時亨)을 정점으로 하는 지도 체계 속에서 세력 확대에 성공할 수 있었다. 대체로 동학도들은 최시형에게 존경심을 가졌고, 그 지도방침을 따랐다. 장내리에 대도소를 설치한 이래 최시형은 보은과 옥천에 머물러 있었다. 최시형은 주요 의식을 측근 대접주들과 함께 치루고 중요한 가르침을 폈다.

동학의 세력이 커지고 대접주들이 조직 내에서 갖는 위치가 높아지자 최시형은 이들의 의사를 미리 듣고 주요 결정을 하고 있었다. 동학의 교세가 커지게 되자 이를 알게 된 왕조 정부는 탄압을 가하였다.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감사가 사교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지방관아에서 동학도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부패한 관리들은 이를 재산을 갈취하는 기회로 삼았다. 1892년 말부터 펼친 교조신원운동은 탄압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지도자 간의 분화가 일어났다. 대부분은 교주 최시형의 지도 지침에 따르면서 수행과 포교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지침보다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을 앞세우게 된 지도자들도 있었다. 그 지도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서장옥이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명의 대접주들이 이에 동조하였다.

조재벽은 동학 교단의 주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교조신원운동 과정에서 사회운동을 통해 포교도 공인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서장옥과의 관계도 영향을 주었다.

조재벽의 포 조직이 활동하던 금산과 그 일대는 최시형이 있던 옥천과 보은에 가까웠다. 금산 일대의 동학도들은 보은 대도소와 왕래가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1894년의 긴박한 시기에 금산의 동학도는 교단이 아니라 남접의 영향을 받고 활동했던 것이 드러난다. 교단보다 전라도의 남접 지도자들과 행동을 같이했던 것이다.

매천 황현은 동학농민군을 남접과 북접으로 나누고 남접은 서장옥의 영향 아래 있기 때

1) 표영삼, 「금산지역 동학혁명운동」 『교사교리연구』 제1호. 이 글은 금산지역의 동학농민군이 활동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한 것으로 주요 논점이 제시되어 있다.

문에 서포로 부른다고 했다. 이런 분류에 의하면 서포에는 김개남, 김덕명, 손화중 포가 속하게 된다. 전봉준도 이들과 가까웠다. 조재벽은 1892년 11월에 삼례집회와 1893년 2월 광화문 앞 복합상소²⁾와 3월의 보은, 원평의 집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들 서포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듯하다. 따라서 1894년 초 전봉준이 이끈 고부농민항쟁은 조재벽에게도 즉각 전해졌다. 동학농민군의 1차봉기에 금산에서 호응하여 어느 지역보다 먼저 기포하게 된 것은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장옥은 동학농민혁명 이전부터 노선이 명확한 활동을 해서 주목되는 인물이었다. 복합상소를 할 때에는 정부를 무력으로 당파(撞破)하고 대개혁을 행하자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사교로 탄압 받던 동학도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시도를 한 것이었다.

서장옥은 수원 또는 청주 출신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수원 출신이라는 설은 매천(梅泉) 황현(黃玟)이 기록한 것으로 전라도 구례에서 전해들은 것을 기록한 것으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그보다는 청주 출신이라고 명시한 서장옥의 판결선고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³⁾ 이것은 1900년에 판결한 선고서로서 평리원 검사와 재판장이 서장옥 본인에게 확인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문을 받을 때 서장옥이 청주에서 태어나 성장한 출신지인 것을 말했는지, 아니면 기록 그대로 당시 청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밝혔는지는 또한 분명하지 않다. 서장옥은 승려생활 30년 간 정처가 없었다. 동학의 고위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면서 청주 울봉(栗峰)에 사는 음선장(陰善長)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는데⁴⁾ 그 이후 처가살이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판결문을 대신할만한 다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장옥이 동학에 들어간 해는 1888년이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동학사와 관련한 기록인 <<시천교종역사(侍天教宗釋史)>>에는 1884년으로 나온다. 또 1886년에 서장옥 황하일 손천민 이관영 등이 수계(受戒)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1884년이 입도한 시기로 보인다. 판결문에는 오로지 동학을 숭상했다는 ‘전상(專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 표현은 동학 교도로서 수도생활을 전념하기 시작한 해가 1888년이라는 의미 같기도 하다.

교주 최시형은 서장옥을 총애하였다. 동학 내에서 서장옥은 주요 지도자로서 부각이 되었다. 교주 아래에는 오래 동안 활동을 같이해온 次道主 姜洙를 비롯한 여러 측근들이 있지만 이들보다 서장옥을 아끼던 모습은 두드러진다.

서장옥이 1889년 10월에 서울에서 체포되었을 때 있었던 다음 사례를 보면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그 다음 해 8월 張世遠과 尹相五가 와서 “徐仁周가 지금 保釋할 수 있으나 재물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하자 최시형은 김연국에게 큰 돈인 五百兩을 구해 석방하도록 주선하였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하늘에 고하는 의식을 치루며 서장옥이 살아나오도록 빌었다. 다른 교도들에게도 “仁周의 死生이 확연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식사 때에 仁周를 위하여 告天하라”고 하였다.

최시형이 유독 서장옥을 그처럼 아꼈던 것은 까닭이 있었다. 최시형은 유능한 인물들이 동학에 들어와 활동하는 것을 반기면서도 동학의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2) 조재벽은 1893년 2월 광화문 앞에서 복합상소를 할 때에 상소장에 서명을 하였고, 많은 교도를 이끌고 참가하였다.

3) 줄고, 2002 「1894년 東學農民軍의 淸州城 점거 시도」 『충북사학』 13집, 20-23.

4) 최시형의 장남 陽鳳이 청주 음선장의 둘째딸에게 장가를 갔기 때문에 서장옥과 최시형은 인척관계가 된다. (<<侍天教宗釋史>> 第二編 八章, 遺蹟刊布. “歲丁亥元朝 --- 是月 師之長男陽鳳有室 卽淸州郡栗峰陰善長之第二女也)

것을 애석해 하였다. 그런데 서장옥은 불교 승려로서 오랜 수행과정을 거쳤고 불교의 儀式에 정통한 인물이었다. 아직 조직과 의식의 체계화가 필요한 동학 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입도자가 크게 늘어났으면서도 도인으로서 역량이 뛰어난 인물이 적었다고 생각한 최시형으로는 교세를 키우고 교단을 정비하는데 서장옥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

동학교도들이 관가의 기찰을 피하기 위하여 변성명하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서장옥은 본명과 자(字) 또는 일해(一海)와 같은 호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활동하였다. 매천(梅泉) 황현(黃玟)의 『오하기문(梧下記聞)』과 「서장옥 판결선고서(徐章玉 判決宣告書)」⁵⁾는 서장옥의 위치가 갑오년이 되면 최시형과 대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장옥이 동학 내에서 이처럼 비중이 커진 까닭은 그가 동학을 종교활동에서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주축으로 전환 시켜나갔기 때문이었다. 東學史의 기록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이, 교조신원운동과 무장봉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서장옥의 추진력이 매우 중요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갑오년 이전 동학의 노선 변화에는 서장옥의 역할이 컸다. 우선 교조신원운동의 원동력은 서장옥이었다. 오랜 유배에서 풀려나오자 서장옥은 서병학 장세원과 함께 1892년 7월 상주 공성면의 왕실마을로 최시형을 찾아가서 교조 최제우의 伸冤을 위한 운동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때 이들은 최시형의 설득을 듣고 온화한 낯빛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은거하며 수도를 하면서 간절히 때를 기다리자”는 교주의 말에 납득했다는 표현이다. 그러나 서장옥은 은거해서 기다리지 않고 때를 만드는 활동에 들어갔다.

그 해 10월에 서장옥은 다시 서병학과 함께 교주 최시형을 찾아가서 교조 신원운동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교도들을 공주에 모아서 충청감사 趙秉式과 전라감사 李耕植에게 신원을 요구하는 글을 보냈다. 그 요지는 “한울이 無極大道를 水雲 崔濟愚에게 내려 참된 聖人の 學이 넓게 퍼졌는데 나라가 탄압하여 죄 없는 殘民이 죽어가기니 여러 고을에 간헐하는 도인들을 풀어주고 先師가 받은 지극히 원통한 죄목을 씻어달라”는 것이었다. 공주에 모인 교도들의 신원운동은 교주 최시형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결국 최시형도 서장옥의 주장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공주집회를 이끌던 公州議送所는 淸州에서 오는 명령에 따라 행동하였다. 교주를 대신해서 공주집회와 이어진 삼례집회에서 활동을 조율하거나 공주의송소에 명령을 전한 사람이 청주에 근거지가 있던 손천민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렇지만 청주는 서장옥의 근거지였기도 했기 때문에 그가 공주에 직접 가서 활동하지 않은 시기에는 전령을 통해 의송소에 의견을 전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왕조정부에서도 서장옥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보은과 원평 집회 직후 서장옥은 전봉준과 함께 지목이 되어서 추적을 받는다. 다음 자료에 그 같은 사정이 소개되어 있다.⁶⁾

“지금 양호 선무사(兩湖宣撫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를 보니, ‘운음(綸音)을 선포한 후에 보은(報恩)에 모였던 비적(匪賊)들은 이미 다 귀순하거나 해산하였으며 무리를 모은 연유는 이미 서병학(徐丙鶴)의 입에서 드러났습니다. 발표한 통문(通文)과 게시한 방문(榜文)에는 원래 이름이 있지만 정상을 헤아릴 수 없으니 사색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호서(湖西)의 서병학과 호남(湖南)의 김봉집(金鳳集)과 서장옥(徐長玉)은 모두 각각 해도

5) 政府記錄保存所, 1994 <<東學關連判決文集>>, 37. 徐章玉 判決宣告書 “忠淸北道 淸州郡居 農民 年四十九 被告 徐章玉은 戊子年부터 東學을 專尙히더니”

6) 『고종실록』 고종 30년(1893년) 4월 10일자.

(該道)의 도신으로 하여금 잡아다가 영옥(營獄)에 가두고 엄하게 조사하여 등문(登聞)하게 하며, 호서 전 도신 조병식(趙秉式)은 높은 품계의 관리로서 감사(監司)의 직책을 맡은 만큼 그 맡은 책임이 더욱 각별한데 무리를 모은 연유에 대한 보고를 지체한 잘못이 이미 어사(御史)의 규탄에 올랐으므로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우선 간삭(刊削)의 형전(刑典)을 시행하소서.”

이 자료에 나오는 보은집회의 지도자인 서병학은 서장옥 등 이른바 호남취당을 급진성을 갖고 있다고 위협시하면서 어사 어윤중에게 옥석(玉石)을 구분해달라고 청하고 있다. 이를 보면 교조신원운동을 사실상 선도해온 인물이 서장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서장옥은 갑오년에 남접농민군의 지도자들과 동지로서 결속하고 있었다. 포교의 공인보다 사회 개혁을 위한 자신의 뜻을 펴려는 사람에게는 동학이 하나의 무대였던 것이다. 이는 이른바 ‘자외동도(藉賴東道) 용무지지(用武之地)’라는 표현으로 전해진다.

그런 인물들에게 서장옥은 선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오하기문』의 다음과 같은 전문 기록은 그 위상을 잘 보여준다.⁷⁾

“처음 동학에서는 그 무리를 布라 불렀는데 法布와 徐布가 있었다. 법포는 최시형을 받드는데 법헌이라는 최시형의 호에서 이름을 따왔다. 서포는 서장옥을 받든다. 서장옥은 수원 사람으로 최시형과 함께 교조 최제우를 따라 배웠다. 최제우가 죽자 각기 도당을 세워 서로 전수하면서 이를 '布德'이라 이름하였다. 이들은 동학이 썩기할 때 서포가 먼저 일어나고 법포가 뒤에 일어나기로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서포는 起布라 이름하고 법포는 坐布라 불렀다. 全瑋準이 주동하여 일어날 적에는 모두 서포였다.”

이 기록에는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 하지만 왕조정부에서 보은집회의 중심지도자로 서병학을 지목하고 금구 원평집회의 지도자로 서장옥을 파악한 것을 보면 그와 전라도 동학지도자와의 관계 및 그의 영향력 정도를 알 수 있다.

서장옥과 처음에 같이 행동했던 사람이 보은의 황하일(黃河一)이다. 황하일과는 동학에 함께 들어간 이후 원평집회에 이르는 동안에 뜻이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장옥과의 관계가 더 큰 의미로 부각되는 사람들이 전라도 무장의 손화중, 남원의 김개남, 금구의 김덕명 그리고 전봉준 등이다. 이들 중 몇 사람이 서장옥을 인맥으로 동학에 입도해서 ‘제자’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서로 간의 관계는 이들 모두를 서포(徐布)라는 범주 속에서 파악할 정도였다. 즉 ‘남접’이라는 세력과 서장옥과의 긴밀했던 사정을 알려주는 증거인 것이다.

충청도에서는 서장옥이 이와 같은 영향력을 갖지 못했던 것 같다. 청주를 근거지로 활동했으면서 인근 군현의 대접주들에게는 전라도의 대접주들처럼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교주 최시형이 충청도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어서 서장옥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것이 큰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손천민을 비롯한 임규호(任奎鎬) 김연국(金演局) 손병희(孫秉熙) 등 고위 지도자들이 충청도에 포진해서 서장옥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없었을 것이다.

갑오년 봄봄기에 호응한 규모를 보면 서장옥이 충청도에서 가졌던 영향력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충청도에서는 이 때 회덕(懷德)과 진잠(鎭岑)에서 봉기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무장활동을 하지 않았다. 회덕의 동학농민군도 청주의 진남영병이 순회하자 곧 해산하였다. 그 정도로 세력이 크지 않았다. 가을봄기에서는 충주에서 활동하던 허문숙(許文叔)만이 서

7) 『梧下記聞』

장옥과 같이 활동한 동정이 있고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조짐조차 없었다.

동학농민군의 1차봉기시 장성 황룡촌에서 장위영 병대가 패배했고, 전주 감영이 동학농민군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은 큰 충격을 주었다. 충청도의 동학 조직들도 공공연한 활동에 나서으나 이에 호응해서 무장봉기하는 군현은 없었다. 서장옥이 활동할 수 있었다면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서장옥은 이 때 체포되어 감옥에 있었다. 포도대장 신정희(申正熙)가 동학지도자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였는데 서장옥이 그 중 하나였던 것이다.

“나는 작년부터 東學黨을 잡기 위해 힘을 다 했고 이미 그 중 주요인물 5, 6명을 잡아서 지금까지 囚禁中이다. 그리고 나는 여러 번 그들을 심문해 보았다. 그들의 말로는 따로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 목적하는 바는 지방정치의 개량을 요구함에 있었으며 결코 세상사람들이 지껄이는 것과 같은 요상한 술법이니 종교이니 하는 것은 아니었다.(일부 오자 필자 교정)”⁸⁾

일본 외무성의 외교사료관에도 이와 관계되는 문서가 있다.

“一海兄(서장옥)은 지난 22일 옥문을 나왔으나 동일 4시경 좌포도청에 이감되어 (고문에 의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외로 천은은 끝이 없어 지난 28일 4시경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감축이 한이 없다.”⁹⁾

이 내용은 장재두(張斗在)라는 인물이 ‘갑오 7월 초9일’에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에게 보낸 편지의 머리말에 있다고 한다. 동학 교단이 1차봉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거명하겠다는 취지의 편지인데 여기에 갑오년의 서장옥 행적에 대한 단서가 나오는 것이다.

서장옥은 1893년 포도청에서 수감되어 갑오년에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다. 이미 그는 1889년에 서울에서 체포되어 유배를 당하는 등 포도청에 신상이 파악되어 있다가 보은집회에서 거과의 하나로 거명되고, 과격했던 금구 원평집회의 지도자로서 알려져서 지목 체포되었을 것이다.¹⁰⁾

1894년 봄에 봉기한 동학 조직을 서포(徐包)로 간주한 것을 미루어 보면 서장옥의 1차봉기 불참은 동학농민군의 큰 손실이었다. 그의 활동지역을 고려하면 충청도의 저조한 호응은 그가 수감 중인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사실상 동학 교단은 충청도 군현은 일부에서만 봉기했는데도 서장옥을 전봉준과 더불어 사문난적으로 비난하였다. 교주 최시형의 허락 없는 봉기는 상하관계가 엄격했던 교단에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권, 141쪽. “捕盜大將 兼 扈衛大將 申正熙氏의 直話.”

9) 조경달, 1993 「1894년 농민전쟁에 있어서 동학지도자의 역할 - 徐丙鶴 徐仁周를 중심으로 -」 『역사연구』 제2호, 79 재인용.

10) 결국 서장옥은 관헌에 체포되어 손천민과 같이 처형된다. 고종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고종실록』 37년(1900년) 9월 21일자.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김영준(金永準)의 보고를 보니, ‘피고 서장옥(徐章玉), 손사문(孫思文)의 안건을 심리한 결과 두 범인은 모두 동학(東學)을 오로지 숭상하였으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흘린 것이 전봉준(全捧準), 김개남(金介男), 최시형(崔時亨)과 같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조율(照律)하면 좌도난정죄(左道亂正罪)에 해당하며 교형(絞刑)에 처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의율(擬律)한 대로 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102

인문
역사
이론
수정된. 남매기. 김민서

금산 일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들은 서장옥과 관련이 밀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1차봉기시 어느 지역보다 앞서서 무장봉기한 것이라든지, 동학 내부에서 상하 위치를 지켰던 조재벽과 서장옥의 관계로 보아 그 계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동학도종역사』에는 더 자세한 서술이 나온다. 조재벽이 1887년에 황간(黃澗)에서 동학에 입도했는데 서장옥의 문하에서 입도한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 조재벽은 옥천, 영동, 청산 등 충청도 지역에서 포교를 하다가 1890년경부터 금산, 진산, 고산, 용담지역 등으로 포교지역을 넓혀 갔다. 그래서 대접주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데 보은집회 당시 포접제도를 정비하면서 서장옥이 호서(湖西) 대접주에 임명되자 그 예하에 있던 조재벽은 대접주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재벽이 서장옥의 지도를 받는 상하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자료의 내용은 금산 동학농민군의 지도부가 가졌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포접 단위의 동학 조직은 1894년에 대접주의 봉기령에 따라 무장활동에 나섰고, 인근 동학 조직과 연합해서 활동하였으며, 남접이나 교단의 지침에 따르며 활동한 방침도 대접주가 정하였다. 인맥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해온 동학의 조직망이 큰 영향을 발휘했던 것이다. 금산의 동학 조직을 이끌었던 조재벽이 서장옥의 포에 속했다고 하면 금산의 동학농민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 봉기한 사실이나 일찍부터 치열하게 투쟁에 나선 배경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10

3. 금산에서 활동한 충청도 지역의 동학농민군

조재벽의 배경을 보면 충청도 지역에서 참여한 동학농민군이 금산지역의 봉기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조재벽은 1887년에 황간(黃澗)에서 동학에 입도하였다. 그는 옥천과 영동 그리고 청산 등지에서 포교를 해서 큰 세력을 갖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1890년경부터는 금산을 비롯해서 진산, 고산, 용담지역으로 포교지역을 넓혀 갔다. 1892년에는 전라도 삼례에서 교조신원을 위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이 시기에 조재벽은 유력한 동학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1893년 2월에 광화문의 북합상소에서는 상소문에 서명을 하는 대표로서 부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참가하였다. 1893년 3월의 보은 장내리집회는 활동 근거지와 인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조재벽의 조직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이 봉기하는 시기에 서장옥이 관헌에 체포되어 서울의 감옥에 수감되어서 대접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조재벽은 충청도 동남부와와 전라도의 북동부 즉 옥천, 영동, 청산, 황간과 금산, 진산, 고산, 용담 일대의 동학 조직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도계(道界)를 넘는 동학 조직을 관장했던 이러한 위상은 그가 대접주로서 활동한 사실을 보여준다.

금산 읍내를 점거한 동학농민군 중에는 충청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포접 단위로 이루어졌던 당시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은 3월 기포와 11월 점거시에도 대거 참여하였다.

금산의 사정을 기록한 『금산피화록』에는 충청도의 '비류(匪類)'들이 '금산을 도륙'하는데 합세했다고 밝히고 있다. "영동·옥천·무주 등의 적도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그밖에 개남포·연산포·공주포·강경포 등도 들어왔다 나가고,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금산과 진산 등 인근지역의 거주민들보다 외지인 충청도에서 온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거칠

1-48
18-156
156

1-48
18-156
156-234

o p 11? www. + world. ca 156 18 234

있던 것을 보여준다.

금산이 이런 상황에 들어간 것은 전라도와 충청도를 오가는 길목이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관아건물과 향교, 양반과 향리들의 집이 불에 타버렸다. 금산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동학농민군은 김개남이 이끈 조직이었다. 그러나 청주성을 공격하던 김개남 군이 일본군에 의해 기습당해서 궤멸된 후에는 금산을 점거했던 가장 큰 조직이 힘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금산의 동학농민군 조직은 민보군이 제거된 이후 상대할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내를 계속 장악하고 있었다.

금산 일대의 동학농민군이 마지막으로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중로군이 금산에 들어온 이후였다. 11월 6일에 옥천(沃川)을 거쳐서 금산쪽으로 방향을 틀린 일본군은 제원역에서 10km 동쪽 지점인 양산(陽山)에서 유숙하였다. 11월 8일 "오후 3시 양산에 도착하니 동학도는 금산현과 옥천군 방향으로 퇴각하고 없었다. 민가에서 사영(舍營)하고 있었는데 밤 10시경에 동학도 1천여 명이 마을 보초선을 넘어 진입하여 왔다."11) 일본군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접근한 것은 금산일대의 동학농민군이 당시까지 강력한 군세를 유지했던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군 대대장 미나미 소좌가 옥천에서 금산으로 먼저 와서 기다리던 분진대 장교에게 보고받은 것을 보면 금산 일대에서 "20명 혹은 30명씩 적을 죽인 일이 세 번이나 있었다."12)고 한다. 마지막까지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동학농민군은 흩어져서 조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충청도의 동학농민군 참여자는 지목을 피하여 은신하여야만 하였다. 이때 보은과 옥천 영동 일대를 순회하면서 동학농민군 잔여세력을 제압한 것은 상주소모영 유격병대였다.

왕조정부는 동학농민군의 재봉기에 대처해서 9월 29일 삼남에 각기 2명씩 소모사(召募使)를 임명하여 소모영을 설치하도록 하였다.13)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군권(軍權)을 부여한 것이었다. 이 중 상주소모영은 소모사 정의묵(鄭宜默)이 양반세력의 힘을 집결시켜서 강력한 민보군을 구성하였다.14) 그리고 정예 유격병을 파견하여 상주 경내는 물론 충청도 보은, 옥천, 영동 등지를 순회시켜서 동학 근거지를 제압하게 한 것이다.

유격병대를 지휘한 유격장은 김석중(金奭中)이었다. 그는 병서를 해박하였고 병대를 지휘하는데 유능했던 인물이었다. 유격병대는 상주의 모동 모서 공성 화동 화서 화북면 일대를 순회하며 상주성을 점거했던 동학농민군 가담자를 체포해서 처형하였다. 그리고 도의 경계를 넘어 충청도로 진군해서 동학농민군 거점을 순회하였다.

충청도에서 활동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5)

26일 領官 朴明顯이 別砲 80명을 인솔해서 합류, 병정수 130명으로 늘어남. 소모사 進軍 剿滅令을 진함.

27일 瓦池에서 接司 呂聖度 체포. 四隊로 분군하여 청산·보은 4동으로 진군해서 최시형 왕래 藏匿處를 수색, 중모시에서 살아 도망한 南進甲 체포.

28일 남진갑을 月南店 앞에서 포살. 靑山 孝林理에서 飢口 20호 진홀.

29일 청산읍에서 軍糧都總管 裴學秀, 八路都執綱 金景淵 捉得을 독촉 청산현감 趙萬熙,

① 『駐韓日本公使館記錄』✓

② 위 자료, 6권. 『東學黨 征討略記』

13) 『日省錄』 甲午 9월 29일자.

14) 『召募日記』

15) 『討匪大略』✓

裴學秀의 救命을 청함.

30일 八路都省察 姜敬重, 省察 許用을 靑山東市에서 砲殺. 首吏 安漢을 捕縛하여 읍리들에게 金景淵의 체포를 강요.

12월 1일 읍리 辛永稷과 安吏 등이 金景淵을 生擒해 읍으로써 首吏 放送.

2일 車南里에서 大將 徐五德 체포. 小巳洞에서 金景淵·徐五德 포살.

3일 召募營 探細人 朴貞浩 야간에 와서 崔時亨이 5, 6일 전에 沃川 高寬 등지에서 은신해 있던 것을 밀고.

4일 永同 高寬里에서 大將 鄭允瑞를 捕得.

5일 鄭允瑞를 포살. 무주에서 10리 거리인 下高寬里에 이르렀을 때 東徒 7,000여 명이 茂朱邑을 함락시키고 영동과 상주로 향한다는 소문을 듣고 회군.

6일 水石에서 자칭 左翼將 張汝振을 포살.

8일 還邑 留陣.

1차로 활동한 10일 간 상주 유격병대가 중점을 두고 수색한 대상이 첫째는 동학 교주 최시형, 다음으로 이 일대의 동학농민군 고위 지도자들, 그 다음으로 금산 점거시 가담자였다. 상주 유격병대가 최시형이 은신하던 영동 고관리에서 체포한 정윤서는 금산에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진 인물이었다. 『토비대략(土匪大略)』은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¹⁶⁾

四日 夜分銜枚行六十里 至高寬里 捕得匪魁大將鄭允瑞 出榜安民 鄭允瑞者 自稱大將 而月前起徒萬餘人 陷錦山 殺鄭參判肅朝 又與日兵 戰于梁山市敗走 而毒流隣境 伏罪之日 隣境稱賀 (4일 밤중에 조용히 60리를 행군하여 고관리에 이르러서 비괴 대장 정윤서를 체포하였다. 방문을 내서 백성을 안심시켰다. 정윤서는 스스로 대장이라고 칭하고 한 달 전 무리 1만여명을 봉기시켜서 금산을 함락하고 참판 정숙조를 살해하였다. 또한 일본군과 양산 장터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패주하였다. 그 독이 이웃 고을까지 퍼져있어 그가 죄를 받는 날 이웃 고을에서 칭찬하고 축하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정윤서는 대단한 인물이었다. 충청도에서 '1만여명'이나 무장봉기시켜서 이웃 고을인 금산까지 가서 읍내를 점거하였다.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중로군이 금산에 들어올 때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양산에서 기습하기도 하였다. 일본군에게 패해서 영동 고관리에 돌아와서 있다가 상주 유격병대에게 체포되었으나 스스로 대장을 칭할만큼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이 기록을 통해 금산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중 많은 사람들이 충청도 지역에서 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정윤서는 금산에서 물러난 후 근거지에 은신하고 있을 때 기습을 당해 체포되기는 했으나 1894년에 충청도 영동 일대와 금산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정윤서와 같이 금산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은 계속하여 관군의 지목 추적을 받게 된다.

양호도순무영의 선봉진에 의해 옥천 서재촌 등에서 을미년 정월 8일에 13명이 체포되었다. 이 동학 근거지를 수색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보은 동학집회의 지도자로서 활약한 서병학(徐丙鶴)이었다. 서병학은 충청도와 경상도의 동학 근거지를 다니면서 교주 최시형에게 교조신원운동을 퍼도록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관헌에 체포된 후 회유되어

16) 위 자료, 12월 4일자.

선봉진의 참모관으로 변신해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을 체포하는데 길안내를 하고 있었다.

이때 잡힌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의 죄목은 금산도륙자(鎭山屠戮者)이었고, 이름과 직책은 다음과 같다.¹⁷⁾

- 영동 서재춘 - 접주 이판석, 접사 김철중, 성찰 김태평, 포수 김고미
- 영동 삼실춘 - 접사 배순안, 접주 이관봉, 성찰 박추호
- 옥천 이원역 - 성찰 이대철, 장명용, 포군 이오룡
- 옥천 오정동 - 접주 고덕현, 접사 고원행, 포군 고경일

이들은 개개인의 활동상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대장 정윤서의 지휘를 받아 금산에서 활동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다른 포 조직에서 활동한 사람들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근거지로 나온 영동의 서재와 삼실춘, 그리고 옥천의 이원역과 오정동을 무대로 활약한 인물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체포된 다음날인 1월 9일 모두 처형이 되었다.

4. 맺는 말

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진산의 동학농민군이 주축이 되어 조재벽과 최사문을 비롯해 서 옥천, 청산, 영동, 황간, 고산, 금산의 여러 접주들이 가세해서 전개하였다. 1차 기포는 전봉준과 손화중이 중심이 된 무장 기포보다 이른 시기에 일어났다. 그리고 읍내 점거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치열하게 활동하였다. 금산 일대의 동학농민군은 교단 조직의 지도자들 중 사회 정치운동을 앞세우는 노선을 따라서 일찍부터 붕기하게 된 것이다.

대접주 조재벽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은 서장옥이었다. 서장옥은 매천 황현이 그 위상을 교주 최시형과 같은 인물로 표현했던 사람이었다. 서장옥에 관해 서술한 판결문도 그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서장옥이 교조신원운동 당시부터 활동했던 행적을 조사하면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금산 일대의 동학 조직이 1894년에 취한 일련의 방침과 활동은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서장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남접농민군 지도자를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경향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전야에 노선을 일정하게 이끌어온 활동도 주목을 받아야 한다. 그의 일생을 보면, 승려로 수십년을 지내고 동학지도자로서 10여년을 보냈는데 왜 동학교단을 사회운동 정치운동의 한 가운데로 이끌어 넣었는지, 그 개인적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 가지를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금산 읍내를 점거할 때 합류한 동학농민군 중에는 충청도 옥천과 영동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진압기록을 통해 이들의 명단이 일부가 확인된다. 동학의 근거지를 찾아낸 순무 선봉진 병사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피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들어가서 체포한 사람들이었다. 이 지역의 동학농민군 참여자를 일제히 수색을 할 때 기찰에 걸려서 체포되었지만 그 죄목을 두드러지게 기록한 것을 보면 진압군은 금산에서 읍내를 점거하고 민보군을 해친 사람들을 위협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체포하는 대로 즉시 처형하고 있었다.

진압기록에서 확인되는 인물은 일부에 불과하다. 금산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측의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를

①7 『巡撫先鋒陣騰錄』 1895년 1월 20일자. ✓

가능한대로 상세히 밝혀내는 것은 우리에게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참담한 경험을 후대에 교훈으로서 전달하는 것도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의무가 되고 있다.